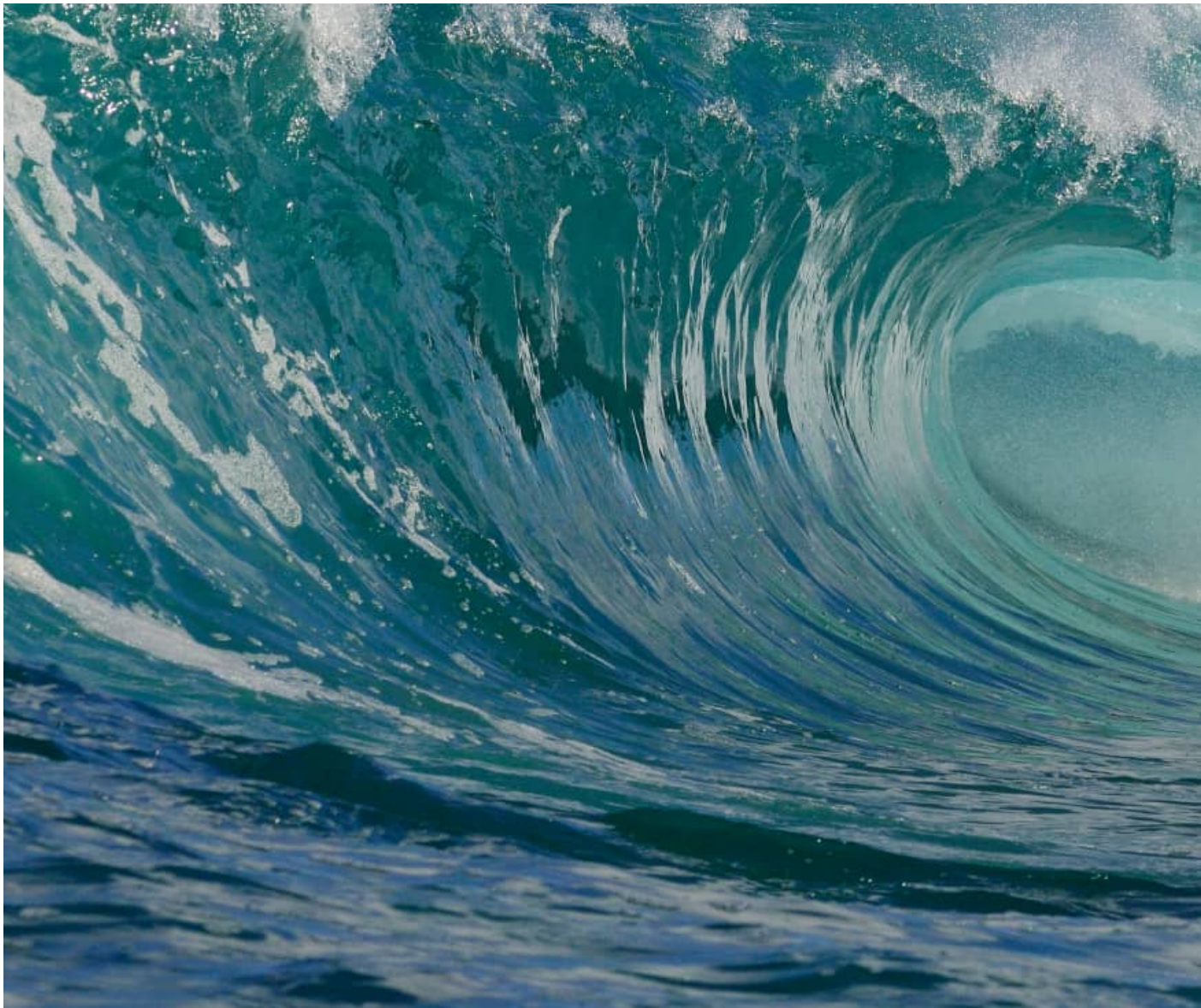


2021
No.112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대자연의 신비와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컨트리클럽



국내최초 스코틀랜드
링크스 스타일의 정통코스

청주 Grand Country Club

전홀(27홀) 라이트 시설로 환상적인 야간 라운딩
넓고 평탄하게 전개된 코스
자연지형을 그대로 옮긴 울창한 수림

위치 | 옥산-오창 고속도로 서오창 IC에서 4km, 약 5분 거리

주소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꽃화산길 51-20

대표번호 | 043)212-7111

청주 Grand Country Club

대표이사 임재풍 (경영78)



13년 연속 수상
[스스로학습시스템]



9년 연속 수상
[재능스스로수학]



8년 연속 수상
[생각하는피자]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스스로 하면 재밌다. 쉽고 잘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재밌다.
자신감이 붙고 집중력도 생긴다. 시키지 않아도 자꾸 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스스로가 아이를 바꾼다. 미래를 바꾼다.
스스로의 힘을 믿습니다. 재능교육



JEI 재능교육

스스로학습으로 키워가는 미래, 재능방송·인천재능대학교와 함께 합니다.

재능그룹 회장 박성훈 (상66)



감사합니다

Anytime
Anywhere
I will take you!



MIGHT & MAIN(주) 사장 최철원 (무역88)



MIGHT & MAIN(주)

www.mmcorp.com

COSMO
최고를 향한 새로운 도전!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1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월 25일(월) 14:0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비대면으로 실시
4월 15일(목) 18:30	상반기 상임이사회	비대면으로 실시
5월 12일(수)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선물로 대체
8월 10일(화)	야구부 후원금 전달	총교우회 주관 장소
9월 11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취 소
10월 7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취 소
10월 21일(목) 18:30	하반기 상임이사회	미 정
11월 말	제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L-P경영관
12월 2일(목) 18:20	제40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 04_ 교수 인터뷰
 - 08_ 백수 축하글
 - 10_ 교우 인터뷰
 - 14_ 교우 업체소식
 - 16_ 출판 기념회, 신간소개
 - 18_ 교우동정
 - 19_ 교우기부
 - 20_ 학년별 소식
 - 24_ 연대별 소식
 - 25_ 교우기고_시
 - 26_ 교우기고_수필
 - 28_ 교우기고_여행기
 - 36_ 교대인의 날
 - 38_ 모교소식
 - 39_ NEWS
 - 40_ 경영대 소식
 - 41_ 경영대 산학협력
 - 42_ 캠퍼스 여름
 - 46_ 교수칼럼
 - 54_ 회비납부명단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1 통권 제112호 Vol.34

발행일 2021년 7월 30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덕한
편집인 신학기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교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김익수 교수님 퇴임 Interview

연구자로, 강사로, 스승으로...
고려대 경영대학과 함께한 26년

Q1 교직 생활을 마치시는 교수님의 소회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당시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73학번 학생으로 입학해 26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치기까지 인생의 제1막을 모교에서 보낼 수 있었던 '행운아'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안암골'에서 꿈을 키우고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짧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으로 인해 공무원 이외의 길을 택하기로 마음먹었고, 영국 'John Swire & Sons' 그룹의 재단이 후원하는 제2회 장학생에 뽑혀 옥스퍼드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경제학 석·박사 연계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1년 5월부터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고, 1995년 3월에 고려대 무역학과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죠.

중국 경제와 관련된 원어 책, 저널, 신문 등의 연구자료가 잘 비치된 연구원과 비교해 학교 도서관의 환경이 아쉬운 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통계연감과 주요 저널은 사비로 구입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모교에 돌아와 훌륭한 교수님들, 똑똑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하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니 적지 않은 제자를 길러냈다는 성취감과 중국에 특화된 연구를 일관되게 수행했다는 자부심이 큼니다. 공무원과



연구원 생활을 거쳐 늦깎이 교수가 되었음에도 큰 사고 없이 완주했다는 안도감도 들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좋은 연구와 강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 인생 제2막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교차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연구 인프라와 환경을 제공해 준 학교,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고 융·복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일깨워준 동료 교수님들, 그리고 퇴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 행정적 도움을 주신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Q2 교수님께서 연구해 오신 분야와 연구 성과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유학 전이었던 1984년, 산업연구원(KIET) 특수 지역실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중국 경제도 알지 못하고 중국어도 한마디 못하는 문외한이었죠. 그런데 도서관에서 중국 관련 자료를 찾아 보니 정치, 역사, 문화 관련 자료는 많은데, 경제 분야는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 경제 연구에 제 인생을 걸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스터디 그룹을 조직해 대만 선생으로부터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수교 이전이라 중국에는 못가니, 전문 교수님을 찾아 제3국인 영국으로 가게 된 것이죠.

중국 연구에 관해서는 대만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1세대 중국 전문가 그룹, 수교 이후 중국에서 학위를 받은 분들이 3세대 전문가들인데, 저는 영미권에서 공부한 2세대 중국 전문가입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는 독학하면서 경영학과 인문학을 융·복합적 관점에서 접목해 연구해왔습니다.

교직 생활 전에는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국의 산업, 한·중 FTA, 두만강지역 개발사업 등 거시적인 이슈를 주로 연구했습니다. 교수로 부임한 이후에는 국제 경영 전략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진입, 현지 경영, 철수 및 구조조정, 지재권침해 혹은 반부패 정책 속의 비(非)시장전략 등 주로 기업 관점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총 24권의 저서(1권의 번역서 및 2권의 편저서 포함)가 있지만 경영대학 재직 시절에는 교과서 2권, 전문연구서 6권을 집필했을 뿐입니다. 논문에 쓰는데 시간을 주로 썼기 때문이죠. 국내·외 학술지에 등재한 80여 편의 논문 중 95% 이상이 중국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김중국 교수'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남들이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을 외로이 걸어온 셈이죠.

Q3 경영대학에 처음 부임하셨던 시절을 회상하신다면요.

제가 부임하던 1995년에는 경영대학 건물이 경영본관 하나밖에 없었고, 경영대학 전체 교원 수가 40여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휴게실에서 다른 분야 교수님들과 담소도 나누기가 수월했죠. 이제는 건물이 3개로 늘어나고, 교수님 숫자가 80명을

Interview

넘다 보니 모든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공의 특수성 때문에 저는 부임하자마자 당시 신설된 국제대학원에 지역 연구 강의 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때 국제대학원장으로 계셨던故 김동기 교수님의 부탁으로 중국 지역 전공 주임교수, 최고위정책 과정 주임교수도 1년 이상 했고요. 요즘에는 신입 교원에게 강의 시수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연구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Q4 오랜 교직 생활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제 성격이 단순 명쾌하고 직설적인 편이라, 아기자기하고 정적인 에피소드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 도움을 줬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나네요. 중국이 워낙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저는 방학 때도 거의 연구실에 나와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한 번은 학사지원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학부모님에게 조연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들이 학사경고를 받아 제적 위기에 몰렸는데 도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니다. 나중에 어렵사리 해당 학생을 만나보니 게임 중독에 빠져 소위 '오타쿠'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해 주고 이런 저런 대화도 하면서 무사히 졸업하도록 도와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제가 2009년 봄 학기부터 3년간 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를 맡았어요. 그때 알게 된 ROTC 출신 사장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사지원부, 학생처와 연결해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6년 여의 방학 동안 처음에는 ROTC 생도, 나중에는 가정 형편이 안좋은 학생들에게까지 지정추천인으로서 추천서를 써준 일이 생각합니다.

Q5 경영대학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시면서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나요?

교직자의 역할은 △연구자(researcher) △강사(instructor) △도움을 주는 스승(helpful teacher)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와 강의는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스승'이 되려면 학생들의 생각과 고민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저런 방법을 고민하다가 1996년에 직접 본관 복도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수업 중에 홍보를 해서 경영대학 내 최초의 학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범한 학회 중 하나가 FES(Future Entrepreneurs' Society)로, 국내·외 창업 모델과 혁신 방식을 학습 및 토론하여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학회입니다. 지금은 스타트업연구원 등 창업지원센터가 교내에 여러 개 있지만, 그때는 FES가 그런 역할의 일부를 한 셈이죠. 다른 하나는 SBC(Secrets Behind China)라는 중국경영전략 학회인데 연구 성과를 학생들과 공유하고 수업 시간에 못다 한 얘기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20여 년 동안 두 학회를 지도하다보니, 거처간 학생들이 벤처 사업가, 컨설턴트, 대기업 간부 등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 출신의 석·박사생들도 있습니다. 다만 연구 분야가 워낙 특수한 까닭에 다른 교수님들과는 달리 박사생을 그리 많이 배출하지는 못했어요. 40명 가까이 되는 석사생과 2명의 박사생을 배출했고, 일부는 석사학위를 받은 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국내·외 대학교수나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6 퇴임 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웃음). 현재 아세아문제연구원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어서 인생 2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임기가 끝나는 올해 8월 말까지 교정에 머무르면서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계획으로는 그동안 중국 경제와 시장에 관해 딱딱한 전문 연구서만 써왔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가볍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주석 없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또 필요하다면 무료 특강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재능기부도 해보고 싶고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천천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Q7 마지막으로 경영대학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선배 교수님들과 역대 학장님들, 운영진들, 동료 교수님들, 헌신적인 직원들 덕분에 급속 발전을 해왔고, 국내·외 각종 평가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며 위상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The First & The Best' 경영대학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교수님들의 연령층을 보면 신입 교원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경영대학의 목표인 'Global Top 30 & Asia No. 1'을 달성하는 데 관건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가 2019년 경영대학 교과목 개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미국의 와튼스쿨, 하버드, MIT 등의 대학을 벤치마킹해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가 정신과 혁신'이라는 트랙을 발굴하고 학사과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경영'등의 트랙도 추가되면서 학부 수준에 총 3개의 세부 트랙이 신설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심리학, 통계학, 법철학, 컴퓨터 과학 등과 융·복합하는 이 같은 다양한 시도를 더 강화해 앞으로 다른 대학들과의 차별성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 26년간 후학 양성에 힘써 오신 김익수 교수님이 2021년 2월 24일(수)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111호의 지면관계로 김익수 교수님의 인터뷰는 이번 112호에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신문 제692호 발췌

한국 보험학의 개척자 宋基澈 교수님

白壽(백수)를 축하드립니다

한국 보험학의 선구자·개척자 고려대 송기철 명예교수께서 3월 17일 우리 나이 99세(白壽)를 맞으셨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100세를 맞이하기까지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송기철 교수님께서 한국 보험학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1956년 3월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전임강사로 임명된 후 해외유학을 하였고, 귀국 후 어려운 여건에서 보험연구소 창립 공적과 보험학회 설립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학 대학교재(『보험학 총론』, 경기문화사, 1958, 정가 1,200원(圓))을 집필하셨고, 서독 유학 후 1962년 일신사에서 개정판 『보험학』을 간행하셨다.

1957년부터 서독 쾰른 대학에서 3년간 유학하며 경제학 박사(Dr. rer. pol) 학위를 받으면서 동 대학 보험연구소(소장, 파울 브레스 교수)에서 보험학을 부전공으로 연구하셨다.

1960년 7월 귀국과 동시에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교수로 복귀하시면서 1961년 최초로 한국 보험연구소를 고려화재해상보험(주)의 지원을 받아 사내에 설립하고 기관지 『保險研究』를 발행하셨다. 이 회사의 정주영 업무부장이 연구 간사로서 모든 업무를 주관하였다. 『保險研究』는 1962년 7월 (제2권 제3호)부터 손해보험협회가 인수하여 기관지로서 1964년 9월까지 제4권 제9호를 내고 지면증설과 동시에 계간으로 1966년 6월 제호를 『손해보험』으로 변경, 월간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필자는 보험연구소 창간호 『보험연구』 제1호를 손해보험협회에 2007년에 기증한 바 있다.

송기철 교수님은 나의 고려대학교 상과대학(1960~1964) 은사로서 학부 시절 보험학 연구를 권고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지도교수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서 후계자로 키우셨다.

한국 대학에서 보험학 교육은 보성전문 상과에서 1925년부터 상과 2학년 과목으로 보험론(총론) 2학점(2시간), 3학년 보험각론(화재, 생명, 해상 3시간) 3학점이 개설되었다. 또한 보성전문 법과에서는 보험법 과목이 상법 총론, 어음·회사법, 해상법 과목과 함께 강의 되었다. 8.15광복 이후 보험학 교육은 전공교수로



서 김의도 교수(1946~1950), 송기철 교수(1953~1971), 신수식 교수(1972~2007), 김창기 교수(2010~현재)로 계보가 이어지면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송기철 교수님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험학의 선구자, 개척자로서 후학들의 귀감이 되어왔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교육자, 경영학자, 경제평론가, 공사기업체의 자문, 정부부처의 평가위원으로 활약이 많으셨다.

우리 한국보험학회는 교수님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100세 그 이상의 천수(天壽)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제자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申 守 植 拜上

신수식 명예교수님과
보험학회 관계자



포은 송기철(宋基澈) 교수

·1925.3.17.	충북 괴산군 출생	·1957.9~1960.3	서독 쾰른대학 유학(경제학 박사)
·1944.3	광신 상업학교 수료	·1960.8	상과대학 부교수(1961.8 상과과장)
·1944.4	경성척식전문학교 경제과 입학	·1960.11	기업경영연구소 간사
·1946.8	보성전문 상과 제2학년 수료	·1962.7	상과대학 교수
·1946.9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상업학과 입학	·1965.10	기업경영연구소 소장
·1950.5.25.	경상대학 상업학과 졸업	·1966.12	상과대학 학장
·1955.3	고려대학교 대학원 상학과 석사	·1971.5	한국보험학회 회장
·1955.4	상과대학 강사	·1990.8	고려대학교 정년퇴임(명예교수)
·1956.3	상과대학 전임강사		

환경컨설팅 전문기업 (주)켄비텍

김일용 대표이사
(경영78)

박수영 전무이사
(경영78)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두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주)켄비텍 대표이사 김일용(경영78), 전무이사 박수영(경영78)



Q1. 교수님과 교수님의 회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체육 특기자(배구)로 서울 소재 중학교에 진학하여 서울에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급에서 키가 가장 컸었고, 배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장이 멈추어, 배구를 중단하고 학업에 전념하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약 40세가 되어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주)켄비텍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적외선 초분광 카메라

회사의 업무는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특히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양을 측정하며 그 데이터를 환경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업무를 티엠에스(TMS : Tele Monitoring System)라고 합니다. 서울 가산동에 본사가 있고, 대전/단양/울산/진주에 지사가 있으며 종업원은 약 50명입니다.

현재까지 회사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중합화학, 포항제철, 현대중공업, 현대석유화학, 쌍용정유, LG정유, 삼양사, SKC, 한국전력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국립환경연구원 등 우리나라의 약 450개 주요 기업 및 공공기관에 굴뚝측정설비, 대기측정설비 및 관제시스템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Q2. 학교 졸업 후 종합상사 및 금융기관에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가 생소한 환경측정 장비 관련 사업에 종사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원래 007 가방 하나를 들고 세계를 누비는 Salesman이 되고자 종합상사에 입사하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가 따분하고, 진취적이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 대학 선배의 권유로 외국은행으로 옮겨 10여 년간 국제 금융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나이 마흔이 가까이 되면서 내 자신의 사업을 해볼까 하던 중 IMF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고 이 당시 지인의 소개로 환경사업을 시작하던 현재의 회사를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Q3. 보통 절친한 친구 사이라도 같이 사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영학과 동기동창인 박수영 (경영78) 교수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동창인 친구가 회사의 전무로서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회계, 기획, 재정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총괄 관리업무 담당 전무로서의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대내적 업무를 관리해주고 있어서 대외적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경감됩니다. 서로가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4. 경쟁 업체와 비교하여 특화된 켄비텍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요?

TMS 사업에서 제작, 공급해야 하는 제품은 유량계, 온도계, 산소분석기, 먼지측정기, 가스분석기, 전처리장치, 데이터로거 등의 7가지 제품이 기본사양으로 갖추어야 될 품목들입니다.

(주)켄비텍의 첫 번째 장점은 가스분석기를 제외한 모든 제품을 자체개발하는 기술력에 있습니다. 경쟁사들



대기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Drone

은 대부분 고가의 외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어서 우리 회사가 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에 걸쳐 있는 지사망/대리점망입니다. TMS 측 정기는 굴뚝에 부착되어 있기에 생산 공정상의 여러 변화로 인 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측정기 장애로 인해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전송되면 사업장에서는 행정처분(과태료, 벌금)을 받을 수 있기에 고객 사업장의 근접 거리에 지사 혹은 대리점이 있어야 측정장비의 신속한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 Partnership입니다. ㈜켄비텍은 세계적 측정 기 메이커인 프랑스의 ENVEA Group의 국내 독점적 에이전트입

니다.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합니다. 세계적 메이커와의 협력관계 구축으로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할 수 있고 신기술의 조기 도입이 가능합니다.

Q5. 출시한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주력상품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출시한 2가지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적외선 초분광 카메라(IR Hyperspectral Camera)입니다. 산업단지에서 누출될 수 있는 독성가스, 폭발성 가스는 대부분 무색, 무취이기에 사람이 위험한 가스의 누출여부를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인명의 살상을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적외선 초분광 카메라는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가스를 가스 고유의 Spectrum 분석을 통하여 가스의 존재 유,무와 가스 종류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카메라로 국내 특허를 취득 완료한 기술입니다. 공장 밀집 지역 및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을 사전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둘째, Drone을 이용한 대기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악취와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할 시, Drone에 소형 대기 측정 센서를 부착하여 가스종류를 식별하고 농도를 측정하여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Drone에 가시광선/적외선 카메라를 부착하여 목표지역을 촬영하고, Drone의 위치 정보를 지도상에서 표출할 수 있습니다.

Q6.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몇 차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데 어려운 위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사업을 영위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칩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획한 제품이 생각처럼 팔리지 않을 때, 경쟁에서 자꾸 뒤처질 때, 자금이 부족할 때, 종업원들이 불안해하며 회사가 흔들립니다. 이럴 때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직원을 설득하며,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확실

한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시켜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한 비전 제시—비전 달성을 위한 부서별 목표 수립—성과 보상이라는 제도를 전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같이 수립하는 것입니다.

Q7. 앞으로의 사업전망과 향후 켄비텍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환경사업”하면 미래가 장밋빛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기업입장에서 보면 단기적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합니다. 경제 환경이 어려울 때는 기업이 환경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환경 사업의 특성은 법이 환경에 대한 규제를 해야 시장의 수요가 창출됩니다. 과거 추이를 볼 때 법이 규제를 하면 약 2년간의 호황이 찾아오고 그리고 이후 약 2년간은 매출하락을 겪어 왔습니다. 호황과 불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왔지요. 따라서 호황 시 비축한 자금으로 불황에 대비하며 열심히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새로운 시장이 왔을 때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가는 방식으로 경영을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성패여부는 적외선 초분광 카메라 등 미래를 내다본 공격적인 투자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시장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은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Q8. 창업을 준비하는 경영대 후배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창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을 때 창업을 하는 것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고 품질이 우수한 물건이라도 팔리지 않으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창업 3~5년차에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등 큰 시행착오를 겪는 ‘Death Valley’를 지납니다.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력, 서비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Long Run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관리 및 건강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경영대 교우회의 발전을 위해 귀중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학번 교우님들은 학교와 교우회에 대한 애정이 상당한 반면, 90학번대~00학번대 이후 교우님들은 학교와 교우회에 대한 애정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영대 재학생의 약 55%가 여학생이라고 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려대 경영대학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을 위해서 후배 교우님들께서 교우회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트위니'

천영석 대표이사
(경영00)

국제물류산업대전 참가



(주)트위니 공동대표 천영석 (경영00) · 천홍석 (전기전자전파공00)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 트위니(대표이사 천영석/경영00)는 2021년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제11회 국제물류산업대전(KOREA MAT 2021)에 참가하였다. 국제물류산업대전이란 국토교통부, 경기관광공사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 경연전람, 케이와이엑스포가 주최하는 전시회이며, 자율주행 로봇, 하역 로봇 및 소팅 로봇과 같은 운반·분류 로봇, 물류 배송, 콜드-체인 솔루션 및 온라인 물류 플랫폼 등 물류분야의 국내·외 12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행사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지속으로 스마트물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ICT(정보통신기술), AGV(무인

운반장비), AMR(자동주행로봇)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트위니는 자율주행플랫폼 타프(TARP)와 타프를 기반으로 한 운송자동화서비스 타라스(TARAS)를 소개하고 자율주행 로봇(나르고60, 나르고100 및 나르고500)과 대상추종로봇(따르고100)을 전시하였다.

자율주행플랫폼 타프(TARP)는 여러 로봇의 상태와 위치를 파악해서 최적의 로봇을 배치하여 통합 관제할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최적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 로봇은 SLAM방식을 이용하여 스스로 지도를 제작한다.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기 전날, 로봇을 움직여 지도를 제작하고 목적지를 여러 개 찍어줬다고 한다. 전시회 관람 중 자율주행 로봇인 '나르고100'이 혼자 전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여러 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나르고'는 운송이 필요한 공장, 도서관, 물류센터, 쇼핑몰, 사무실, 병원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나르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라스(TARAS)라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

타라스(TARAS)는 자율주행플랫폼 타프(TARP)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앱 서비스로서 타라스로 호출하여 운송작업을 시키면 요청작업에 가장 적합한 '나르고'가 배정된 후, 물건을 적재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행사장 중앙에서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따르고'가 눈에 띄었는데 '따르고'는 대상추종 로봇으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 버튼을 누른 사람의 뒤를 따라 다닌다. 비슷한 복장의 사람이 등장하여도 길을 잃지 않고 작업자를 잘 따라가며 물류센터, 공장, 공항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천영석 대표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러한 분야가 알려졌으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실적부진으로 새로운 장비에 손쉽게 투자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비대면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앞으로의 전망은 낙관적이며, 트위니의 로봇은 QR코드, 반사판, 비콘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국내·외 다른 로봇업체와는 차별화된 자율주행 로봇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매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트위니의 로봇은 현재는 실내에서만 운송이 가능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실외에서 운반하는 로봇을 선보일 예정임”을 덧붙였다.

트위니는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 이후 2021년 9월에 부산에서 개최하는 'SI KOREA'와 10월에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로보월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시장을 혼자 누비고 다니는 '나르고'



명령 준 사람을 따라다니는 '따르고100'



500kg를 적재하는 '따르고500'



100kg를 적재하는 '따르고100'





35년 포스코맨 조청명(경영79) 교우

‘아이언맨의 희망 사용 설명서’ 출판 기념회 가져



조청명(경영79) 교우가 2021년 6월 11일 마포구 북카페 채그로에서 ‘아이언맨의 희망 사용 설명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79학번 교우들과 세계미래포럼 이영탁 이사장,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등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하에 진행되었으며 사전행사는 오후 3시부터 행사장 옆 외부공간에서 저자와의 기념촬영 및 사인회가 있었다.

조청명 교우가 포스코 재직 시 비서로 근무했었던 김현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오후 4시부터 출판기념회를 시작하였고 저자 인사, 내빈소개 및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출판사 제작 영상 시청, 저자의 책에 대한 설명, 가족의 편지, 질문시간, 북 사인회 순으로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조청명 교우는 인사말씀으로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책을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 책이 어린 시절에 준 영향력, 이번에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소개하였고 요즘은 심리학 관련 도서에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읽고 있는 중이라며 근황을 전했다. 블로그를 열어 전략차원, 투자측면, 조직관리측면 등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사례들을 잘 정리해서 경영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쓸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내빈들의 축하에서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은 “1차 커리어를 마치고 잠깐 브레이크를 갖는 동안 당신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며 사회에 기여하고 주변에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고, 사제지간으로 만났었다는 한 참가자는 “전남 드래곤스 구단 운영에 전문성이 없었을텐데 길게 보고 기초를 다져나가며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프로구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많이 감동하였고, 책을 읽으면서 본인과 마음이 같아 통했다.”며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분으로 믿는다.”라면서 이번 출판기념회를 축하하였다. 이어 정기영 교우(경영79)는 “책을 읽으며 어떻게 역경을 헤쳐 나갔는지 과거를 확인하고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고, 입사동기라고 하는 참가자는 “책을 읽음으로써 조금 더 멀리 뛸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간단한 소감을 밝혔다.

책을 소개하는 시간에 이어 독자들의 질문시간에서, “희망이 행복이다.”라는 말씀 자주하시는데, 그 뜻과 내용에 대해 알려달라는 참가자의 질문에 조청명 교우는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할까를 고민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것. 어제보다 조금 더 발전한 나. 우리는 종종 이런 소중한 가치를 잊고 살아서 ‘희망이 행복이다.’라고 첫 장에 저자 사인과 함께 적었다. 희망을 놓쳐버리면 행복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출판기념회를 마쳤다.

신간소개



도서명 | 아이언맨의
희망 사용 설명서
저 자 | 조청명(경영79)
출판사 | 도서출판 은빛
출판일 | 2021. 5. 27

35년차 포스코맨이자 ‘턴어라운드 전문가’로 불리는 저자가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성공’과 ‘행복’, ‘희망’에 관한 이야기다. 저자는 포스코플랜텍 CEO로 재임 중 ‘행복경영’의 성과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여성가족부 주관 대통령 상을 받았다. 당시 그가 포스코플랜텍의 워크아웃 탈출 처방으로 내세운 것은 ‘행복경영’이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가 살아난다는 이치였고, 그의 처방전이 유효했음이 결국 증명되었다. 2부로 강등된 전남드래곤즈에 와서도 그는 팬과 함께 행복한 명문구단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일승일패에 일희일비 하기 마련인 스포츠 계에서 그는 구단의 경영철학, 경영원칙을 고민했다. 성공과 행복과 희망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제일 먼저 출근해 선배들을 돕고 고난도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치열한 승진 경쟁이 벌어지는 대기업 포스코에서 중책을 두루 역임하며 어디서든 발군의 능력을 입증했다.

기존의 방식, 익숙한 패턴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혁신을 추구해온 저자는 무한경쟁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남들과 똑같이 경쟁하려 하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르게 접근하라고 말한다. 그러면 남다른 해법이 보이고, 그럼으로써 남다른 성취가 가능하다고 말이다.

저자는 35년간 포스코 인생을 돌아보며 임직원들과 소통하며 썼던 편지, 인간관계의 소회, 사회생활 에피소드, 선배 직장인으로서의 조언, 언론 기고문 등을 폭 넓게 담았다.

■ 교우동정

**최상영 (경영69)**

2021년 6월 25일 최상영 교우가 재일본대한체육회장에 재선되었다.

**박홍주 (경영85)**

2021년 7월 7일 박홍주 교우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장에 취임하였다.

**배홍기 (경영81)**

2021년 5월 27일 배홍기 교우가 PKF서현파트너스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송준용 (무역86)**

2021년 7월 1일 송준용 교우가 롯데손해보험 최고투자책임자로 선임되었다.

**최창원 (경영82)**

2021년 6월 10일 최창원 교우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되었다.

**박 현 (무역93)**

2021년 4월 16일 박 현 교우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으로 승진하였다.

**노충식 (경영84)**

2021년 7월 1일 노충식 교우가 경남테크노파크 제9대 원장에 취임하였다.

**강연호 (경영98)**

2021년 3월 30일 강연호 교우가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승진하였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경문 (경영78) 2021년 5월 15일 아들 김정훈 군

윤장섭 (경영78) 2021년 5월 15일 아들 윤재국 군

정광호 (경영78) 2021년 5월 5일 딸 정예희 양

김정관 (경영79) 2021년 5월 29일 아들 김창훈 군

김희천 (경영79/경영대교수) 2021년 5월 15일

아들 김태경 군

신현길 (경영79) 2021년 6월 27일 딸 신유하 양

임진규 (경영79) 2021년 6월 13일 딸 임세연 양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운형 (상55) 2021년 5월 14일 본인 별세

최금석 (경영59) 2021년 4월 30일 본인 별세

조원영 (상63/자문위원) 2021년 5월 5일 본인 별세

이광재 (경영74/상임이사) 2021년 7월 3일 본인 별세

김정한 (경영76) 2021년 7월 10일 본인 별세

안진철 (경영78) 2021년 6월 5일 모친상

황순하 (경영78) 2021년 7월 22일 모친상

황수철 (경영83) 2021년 6월 16일 본인 별세

김용주 (경영84) 2021년 6월 8일 병부상

장우석 (경영91/이사) 2021년 6월 20일 본인 별세



“마음의 고향 고려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응원하고파”

자수성가 기부왕 유휘성(상58) 교우의 무한한 모교 사랑

“마음의 고향 고려대,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응원하고파”

정보대학, 인성(仁星) 연구기금 결과보고회 열어

정보대학은 5월 14일(금) 오전 11시 고려대 애기능 생활관 301호에서 '유휘성 교우 인성(仁星)연구기금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북 진천 출신인 유휘성 교우는 13세 때 한국전쟁으로 부친을 여의고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지만 힘든 환경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학업에 정진, 1958년 고려대 상학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1970년대 건축공사와 토목자재 생산을 하는 조흥건설을 창업한 그는 끈기와 열정으로 수차례에 걸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기업가로 자수성가했다. 사업을 키워나가면서도 모교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던 그는 2010년, 재산을 정리하면서 오랜 결심을 실천에 옮겼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비롯해 모교에 누적 약 62억 원의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장학기금 외에도 유휘성 교우는 모교의 연구자들이 뛰어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지원하여 단과대학 차원의 연구 활동 활성화에도 힘썼다. 기금명은 모친과 조모의 이름에 들어있는 '인'(仁)과 본인의 이름에 있는 '성'(星)을 따서 '인성연구기금'이라고 명명했다.

평소 과학인재 양성에 관심이 많았던 유휘성 교우의 뜻을 따라 2018년 10월, 정보대학에도 2억 원의 인성연구기금이 지원됐고 2019년 3월부터 IT전문서 및 교양서 발간연구가 진행돼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구에 참여했던 총 13명의 교원이 연구 결과물로 발간한 책 1권씩을 기부자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에 함께 자리한 유휘성 교우는 “보내드린 작은 정성에 학장님 이하 교수님들께서 이런 기념 자리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여든 셋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됐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고향인 고려대의 학문적 발전을 계속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규 정보대학장은 “학부, 대학원에서 교재로도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잘 된 서적들이 대거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유 교우님의 도움 때문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린다. 교원들 뿐 아니라 학생들도 유 교우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www.korea.ac.kr



55 회장 이득주

55학번 동기회 소식 (글 : 이득주 회장) ●●●

- 2021년에 들어와서도 역시 모임을 가질 수는 없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한번쯤 모임을 갖고자 하는 희망뿐이다.
- 그간에 동기들께 두 차례의 소식을 전했다.(업무 추진 실적과 회계보고, 회원 작고 소식)
- 소식지를 보낼 때 한번은 유상옥 회장의 글을, 또 한 번은 소생의 글을 동봉했다. 동봉한 글을 읽은 동기 중 몇 분이 매우 흡족한 반응을 보내주셔서 발송한 본인은 큰 보람을 느꼈다.
- 금년에 회원 명부작성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자랑스러운 동기를 찾았다. 그의 성함은 윤희표(尹熙彪) 동기로 우리의 대선배의 손주이다. 윤 동기는 「碩이의 노래」라는 자전적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 그 祖父이신 滄南 尹炳浩 선생은 보전상과 출신으로 독립지사이시다. 맥내에는 尹曠滂(보전 유학중 1910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따라 독립운동을 하다 1911.1.22. 만주 용정에서 별세), 尹柱石(보전 상과 졸) 등의 선배가 교우로서 3대에 걸친 교우의 연을 맺고 있다.
-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동기 회원님들의 건강과 가내제절이 균안하시기를 기원한다.



회장 이득주

56 회장 이연상 / 총무 변동수

막수회 모임 ●●●

매월 추우나 더우나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모이던 56학번 막수회 모임이 지난 2020년 1월에 7명이 모임을 가진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임을 중단하다가 같은 해 5월, 7월과 10월 3차례 모임을 조심스럽게 주선했으나 3번 모임 모두 평소 참여 인원의 1/2도 안 되는 4명 이하만 참석해서 모임다운 모임을 갖지 못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막수회의 발전을 위해 참여 의식을 가지고 참석해준 동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2021년 들어 백신 접종도 활발히 진행되고 우리 56학번 동기들은 모두가 고령자들이라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여서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지난 6월말에 모임을 주선했더니 평소 월 평균 참석 인원인 8명이 반가운 모습으로 참석해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제 점차 코로나 상태가 완화되는 기미가 있어 2020년 회계년도 말에 개최하지 못했던 정기총회를 7월 달에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의가 있는 지 1주일도 안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7월에도 정기총회 개최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러나 이 조치는 7월 25일까지 2주간이고 우리 모임은 7월 28일인 만큼 4단계 시행 2주 사이에 사태가 호전되어 다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완화되었으면 하는 가냘픈 희망을 갖고 기대해 본다. 동기들의 나이가 80대 중반에 접어들고 보니 동기들의 건강문제가 제일 걱정스럽다. 과거에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던 동기들이 지금은 병마와 싸우느라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서글프다. 우리 모임이 뜸하게 된 지난 2020년 1월 이후에 이병철, 이창우, 김현묵 교우가 유명을 달리하고 소천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기도 했다. 모든 경영56동기회 동기들은 먼저 간 동기들의 명복을 빌어주고 각자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고 다음 모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즐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간의 56학번 동기회 소식을 전한다.

61 회장 정시균 / 총무 이채영

입학 60주년 및 팔순 행사 계획 ●●●

매년 7월 7일 오찬모임을 이어 오고 있는 백두산/고구려유적지 탐방팀은 코로나 사태로 작년에는 만남을 갖지 못하고 방역단계가 완화된 지난 7월 7일 13시 2호선 역삼역 4번 출구 앞 첫 골목안 한정식 식당 '고향마을'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동기 11명과 특별 초청한 동기회 정시균 회장 등 12명이 모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탐방 10주년인 올해에 지난번 서파 등반과 고구려 유적지 탐방에 이어, 2차로 북파 등반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해외여행 금지로 못하게 된 것을 2022년에 채추진기로 결의하고, 코로나로 동기들이 각종 만남을 갖지 못한 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동기는 박인우 탐방대장 외에 김문웅, 김

순구, 박수죽, 박준성, 박진자, 엄무성, 이건태, 이경순, 이채영, 최민자 등의 동기가 참석하였고 김문웅 동기가 오찬비용을 찬조하였다.

다음 회의에서는 아래의 여행 세부계획과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기로 하였다.

1. 행사일시 : 2021년 11월 중
2. 참가대상 : 본인 및 배우자
3. 행사 내용 : 2박 3일 KTX 이용 국내 명승지 여행
4. 참가비 : 추후 확정시 통보
5. 기 타 :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시 행사 재검토



소모임 소식 ●●●

1. 매월 셋째 금요일에 만나는 도암회는 코로나 사태 하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여의도 리버타워빌딩 2층 '봉평 막국수 한우집'에서 김 실 회장 외 10여명의 회원이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2. 매월 4번째 월요일 기흥 코리아CC에서 라운딩하는 골프모임 호비회는 코로나 사태 하에서도 야외모임인 관계로 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정시균 회장 외에 김순구, 김홍곤, 남문희, 민병직, 박광근, 안희민, 원용계, 이복성, 이준웅, 이준재, 이준원, 정홍진, 최 섭 등의 회원이 동참하고 있다.
3. 매월 셋째 토요일과 일요일 사찰순례를 하며 법회를 갖고 있는 불자회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추어 서울과 서울 근교의 사찰을 찾아 제한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
4. 반면, 홀수 달 셋째 화요일에 반포동 '산들해 한정식' 에서 만나는 초암회, 홀수 달 둘째 화요일의 광암회, 짝수 달 둘째 월요일 만나는 이 월회, 매월 넷째 목요일 산행하는 사목회, 2개월에 한번 모임을 갖는 여학우회, 홀수 달 셋째 일요일 사찰순례를 다니는 불자모임, 실버회의 월 1회 부정기 모임 등은, 회원 모두가 2차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4단계 발동으로 모두 취소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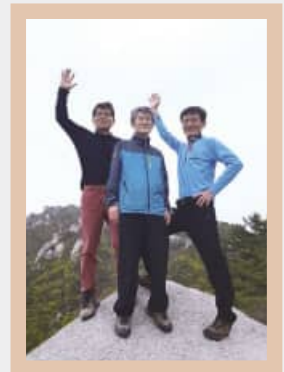
* 6동기회원 여러분,

백신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에는 100% 면역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기필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어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가 다 꼭 다시 만납시다. 6학번 동기회, 아자아자 파이팅 !!!

69 회장 이재선 / 총무 조현룡

월례산행 계속 실시 cf. 번개산행 강화 ●●●

- 2021년 4월 17일 (토) 수락산 정상 등정
- 2021년 5월 1일 (토) 대부도 해솔길 트래킹,
파도와 장끼소리에 걸 맞는 신록의 섬에서 자연산 회 한 접시의 멋진 번개탕!
- 2021년 5월 8일 (토) 청계산 옥녀봉 - 삼포마을 - 경마장으로 하산
- 2021년 5월 22일 (토) 북한산 죽두리봉 - 향로봉 - 비봉 - 승가사로 하산
- 2021년 6월 5일 (토) 청계산 옥녀봉 등정
- 2021년 6월 19일 (토) 도봉산 천축사 경유 자운봉 등정
- 2021년 7월 2일 (금) 수원 서호공원, 여기산 선사유적지 등 탐방
- 2021년 7월 3일 (토) 과천대공원 테마파크 (새로운 코스 개발)





은사님 모시기 ●●●

- 2021년 5월 14일 (금)
 - 스승의 날을 맞아 지청 은사님께 동양란 선물
- 2021년 6월 15일 (화)
 - 몇몇 동기들이 지청 은사님을 초대하여 사은 회식



이재선 69석영회 동기회장 협회 화상회의 운영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경기도지회장으로 있는 69석영회 이재선 동기회장은 전산화의 불모지로 여기는 고용서비스업계에 작년 6월부터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 4월 2일에는 경기도 지회 내 시지부 대의원들의 연 1회 정기총회를 세련되고 안정적인 화상회의로 진행, 성공하여 고용서비스업계 선진화의 교두보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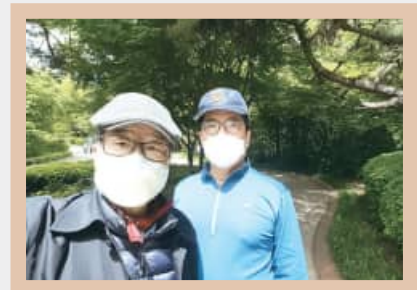


74 경영회장 조군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5월 남산걷기 ●●●

- 일 시 : 2021년 5월 19일 (수)

코로나 중에 오늘 남산모임을 위해 대한극장 앞에서 모였다.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회장과 총무가 필동 쪽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오늘의 코스로 잡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 709회장 한호석 동기가 좋은 코스를 소개해주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오늘 모임은 우리 74학번 남산모임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작은 만남이었다. 남대문시장 횡집에서 낫술 한 잔 마시고 헤어졌다. 오늘 모임을 위해 수고해준 한호석 회장에게 감사드린다.



경영74 확대임원회의 ●●●

- 일 시 : 2021년 7월 3일 (토)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이기에 매년 7월초에 가졌던 경영74 정기모임을 갖지 못하여 지난 7월 3일 경영74 확대임원회의를 열었다. 이제까지 동기회를 4년 동안 열심히 이끌었던 조철래 동기회장이 임기종료로 물러나고 조군환 재수석부회장을 새롭게 동기회장으로 추대하여 만장일치로 신임회장에 선출되었다. 또한 순차적으로 장항덕 동기가 재수석부회장, 우갑준 동기가 제2수석부회장으로 승격되었으며 총장으로는 구자형 현 총장이 수고해 주기로 하였다.

4년 동안 동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고 많았던 조철래 회장에게 감사의 박수를 열렬히 보내고 또 새롭게 동기들을 위하여 수고할 조군환 신임회장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도 2024년 입학 5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회장 조군환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동기를 모두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여 50주년인 2024년 많은 동기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영74 파이팅!

경영74 멘토-멘티 만남 ●●●

· 일 시 : 2021년 7월 5일 (월)

모교 안암골 어느 중국집에서 멘티들과 멘토들의 단촐한 모임이 있었다.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이기에 4명만 모이는 아쉬움이 있었다. 서로 근황을 이야기해주고 멘토들이 좋은 산 경험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나누고 하는 너무나도 값진 자리였다. 멘티 후배들은 이것들을 잘 소화하고 본인에 처지에 맞게 가공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일이 남았을 것이다. 안암골에서 후배들을 만나는 것은 선배로서 매우 기분 좋은 일이다. 모임을 끝내고 야간의 안암골 교정을 옛 추억을 회상해보며 걸었다.



78 회장 홍 승

동C회 :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유어존 이계은 대표를 만나다 ●●●

· 일시 : 2021년 6월 30일 (수)
· 장소 : 경기도 부천시청역 인근
· 방문 : 윤장섭, 유병안 (2인)

이계은 대표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0년,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없이 했던 일이 소형 디스플레이 배송업이었다. 이름하여 비자테크, 말이 회사지 7년 동안 하루에 몇 건 소량 모니터 주문 받아서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어찌 알았을까? 온 세상이 사이니지(Signage · 공공장소나 상업공간에 설치되는 디스플레이)로 뒤덮이고 옥외 광고가 디지털 전광판으로 도배를 하는 날이 올지를. 그러니까 2017년 어느 날, 기업체에서 대량주문이 들어온 것이 신호였다. 시장이 B2C에서 B2B로 바뀌고 있었다. 이후는 바람방향이 바뀐 명량해전의 이순신 장군과 같다. 일손이 딸리면서 아들과 딸도 참여하였다. 이른바 가내수공업의 Family Business가 된 것이다. 지금은 사업영역이 확장되어 디지털 액자, 터치모니터를 넘어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 LED, 솔루션, 렌탈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게다가 설치실적도 한남동 블루스퀘어 스튜디오, 동대구 신세계백화점 벤들리 매장, SK바이오사이언스 LHOUSE 같이 대기업도 등장한다. 그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신입사원 시절을 현대차 전산실에서 지낸 것을 보면, 이미 35년 전에 IT비즈니스와 연이 닿아 있었다는 점에서 운이 아니라 창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예정설을 지지하게 된다. 그는 지난 10년간 고생을 많이 하면서 몇 가지 추가가치를 정리했는데 최고보다 최선, 최상의 품질, 정직한 가격이 그것이다. 그저 소박하다. 역시 회사의 핵심가치는 창업자를 닮는 것이니까. 그와 그의 아들 그리고 딸의 사업변창과 업그레이드를 기원한다.



84 경영회장 윤영원 / 경영총무 이순규

경영84바이오포럼 모임 : 케일헬스케어 강문호 동기를 만나다 ●●●

경영84바이오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이순규, 임진균 동기는 강문호 동기의 회사 케일헬스케어를 방문하였다. 애널리스트 시절 수년간 바이오 분야 베스트로 선정된 바 있고 달변가인 임진균 동기는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 브리핑과 경영의 도움이 될 클루를 제공하였다. 케일헬스케어는 노화성 질환 바이오파마와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및 빅데이터, 바이오 교육사업을 모델로 한 벤처기업으로, 최근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생체정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치료 기기 개발" 과제가 선정되기도 하였다. 경영84바이오포럼은 코로나 시국으로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 적은 인원으로 경영84 동기들의 바이오 관련 기업을 계속 탐방할 계획이다.





KUBS Ladies 회장 이충진 (경영81)

온라인 Dream Concert ●●●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생활과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도 KUBS Ladies는 다양한 행사와 콘텐츠를 통해 재학생과 교우들께 다가갈 수 있었다. 2021년 1학기에는 특히나 모교 경영대 출신 연사를 모시고 진행하는 인생/커리어 강연인 '드림콘서트'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2021-1 Dream Concert는 현재 Mars Wrigley 아시아 초콜릿 사업부문 상무로 재직 중인 02학번 홍상은 교우를 초빙하여 6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화상 미팅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 진행했다. KUBS Ladies에서 그동안 많이 모셔왔던 회계, 재무, 창업 분야가 아닌 마케팅 분야의 연사를 모시면서 걱정도 기대도 있었으나 사전참여 신청자가 70명을 넘어갈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보였으며, 그 덕에 강연 내내 Q&A와 같은 열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 Dream Concert의 경우 단순 취업 설명회식이 아닌, 연사의 대학 시절부터 커리어 로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다. 홍상은 교우도 재학 당시 경험했던 활동과 개인적인 시행착오는 물론 진로 선택 시 고려했던 사항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어서 참가자들의 많은 공감을 이룰 수 있었다. 2021-1 Dream Concert를 마친 이후, 홍상은 교우께서 재직 중인 Mars Wrigley에 드림콘서트에 참가했었던 경영대학 재학생이 마케팅팀으로의 입사 소식 또한 전해들을 수 있었다. KUBS Ladies가 지향하는 '선후배 사이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연결의 고리'를 실천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알고 싶은 교우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 - 922 - 3762
· FAX	02 - 922 - 3763
· E-MAIL	kubsa@kubsa.or.kr

無我之境

김진하
상66·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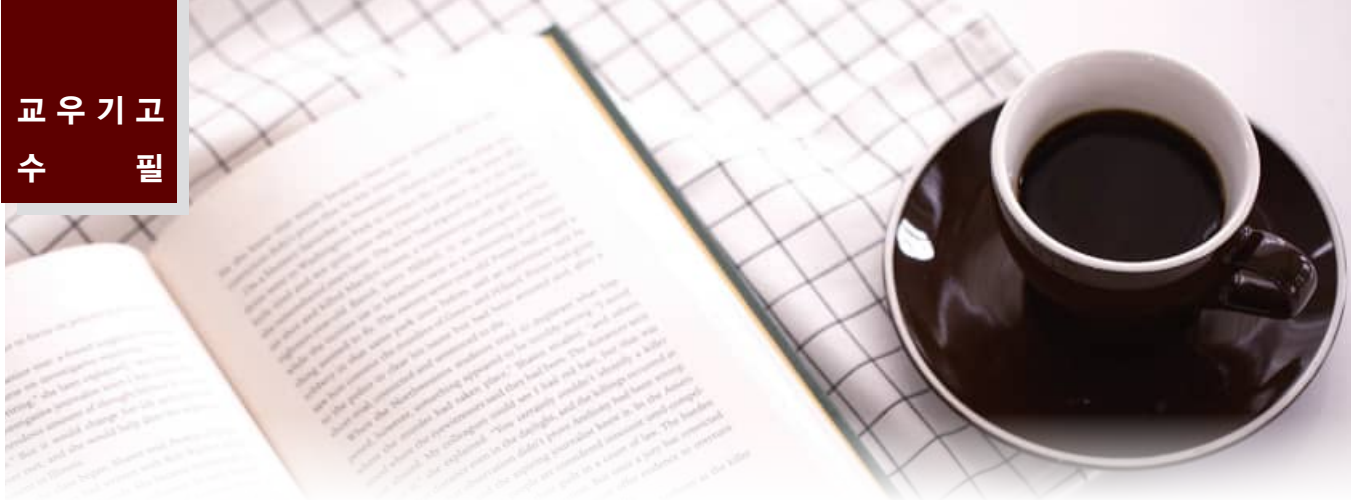
나이 70을 벌써 넘어섰는데도
매사가 힘들고 왜 이리 전전긍긍하는가?
건강걱정 가족걱정 돈걱정을 벗어나야 하는데
이러다 걱정속에 여생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뒷산 달마사를 둘러본다.
절은 절하는 곳이라
아무 목적도 없이 무심코 부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모은다.

연두잎들이 푸르려간다.
산들바람이 귀밑을 시원하게 한다.

연못에 유연하게 왔다갔다 하는 저 붕어처럼
사뿐이 날아가는 저 제비처럼
가볍게 춤을 추는 저 나뭇잎처럼
무아지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숲속벤치에서 벌떡 일어나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맨손체조를 한다.
이 순간이 無我之境이다.



반복하여 읽기



황 인 강
상61·수필가

언제부터인가. 글을 읽고 책장을 덮고 나면 무엇을 읽었는지 까맣게 생각이 나지를 않는다. 시간을 쏟아 읽었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이 없어 허전함을 느낀다. 그럴 때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읽어야지’하고 일단 챙겨둔다. 오랜 시간이 지나가기 전, 읽은 것을 완전히 잊어버릴 것 같아 생각나면 재차 읽곤 했다.

글을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려 애를 쓴다. 어떤 글은 반복해서 읽는다. 책 읽는 속도가 자연스레 느려지는 폐단이 있다. 그러면 속독이나 정독이나의 독서방법이 문제가 된다. 꼭 이해하고 넘어가느냐,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읽어 내려가 나중에라도 이해하면 되지 하는 경우다. 한번 읽은 글을 다시 읽으므로 재미와 뜻을 느끼면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족감이 된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데도 모르겠다. 어떤 글을 읽을 때 뜻을 완전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을 나의 속독습관 때문인지 대충 넘어가려하는 습성 때문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좋은 글이나 문장을 접하면 그 감동이 가슴속에 오래 남는다. 그 책의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보고 또 읽고 싶어진다. 중요하고 감동적인 문장이나 내용은 요약해서 일기장에 적어둔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간직하고 싶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글을 자주 많이 간직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감동을 받은 글이나 문장을 다시 보고 읽고 싶은 것은 사람의 인지상정이 아닐까. 근래에 책을 눈으로만 읽고 내용을 깊이 이해를 안 한 채 헛고생 하는 듯 대충 눈으로 읽고 지나감을 절감한다.

꼭 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운동이나 정해진 자기만의 공부는 당연히 반복을 함으로써 지속가능하다. 매일처럼 반복하는 나의 건강유지 방법을 중단하지 않으려고 일기장에 주간단위로 쓰는 항목이다. 수영 몇 회, 계단 오르기 몇 회, 발끝 부딪히기 몇 회 등 누적 횟수를 적는다. 횟수를 기록해 나가면 빼먹지 않게 된다. 지속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때마다 몇 회 했다고 기록하는 것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스스로 막기 위해서다. 한번 등산했던 산도 다시 가보고 싶어질 때가 있다. 젊은 시절, 춘천 의암호 옆에 있는 삼악산을 등산이 아닌 야외놀이로 산 입구까지 갔다가 그냥 내려왔던 기억이 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산을 다시 가보고 싶은 욕구가 발동했다. 아름다운 풍경과 발아래 펼쳐진 낮은 산과 강을 다시보고 싶어서다. 그 옛날 맛보기 정도의 산행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대로 완상(玩賞)하지 못하고 내려왔던 아쉬움 때문이라. 책임기는 등산보다 쉽다. 등산은 미리 날짜를 잡아야하고 일행과 스케줄을 조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책 읽기는 그렇지 않다. 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무게감이 다르고 관심정도가 다르기는 해도 감동스런 책은 또 읽고 싶은 마음이다. 신문지상에 오른 보석 같은 글이나 명언을 보면 귀한 보물이나 되는 듯 스크랩을 한다.

신문을 오래낸 쪼가리들을 너저분하게 보관하고 있지만, 나중에 그것이 중요하고 귀하게 쓸 보석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한번 읽고 글의 행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독서방법인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과거의 독서가 느렸다면 속독으로 바뀐 뒤부터는 의미를 즐기지도 못하고서 넘어가기만 했던 것이 단점이 될 줄이야. 이제는 좋은 글은 두 번 읽지 않고는 읽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반복해서 읽어야 그 글의 참 의미를 깨달아 즐거움을 만끽하는 습관이 되어가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화면으로 읽는 독서는 ‘눈으로 보기만 하는 독서’라며 효과가 없는 글 읽기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책 읽기에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는 일종의 경고처럼 들리기도 한다. 우리의 선현들은 종이에 인쇄된 글을 읽고 그 글자 뒤에 함축된 뜻까지 생각해야 제대로 된 독서라고 하지 않았던가. 역시 반복하여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아날로그 식 독서가 바람직한 독서방법이 아닐까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전자책이 쏟아져 나올 것을 상상해 본다. 아날로그 방식의 책임기가 빠르게 대체되게 되리라는 것이 멀지 않은 일인 것 같아 두렵고 아쉽기조차 하다.



이베리아반도

여행기



허창무

상65·시인·수필가
(前)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現 주택금융공사 전신) 임원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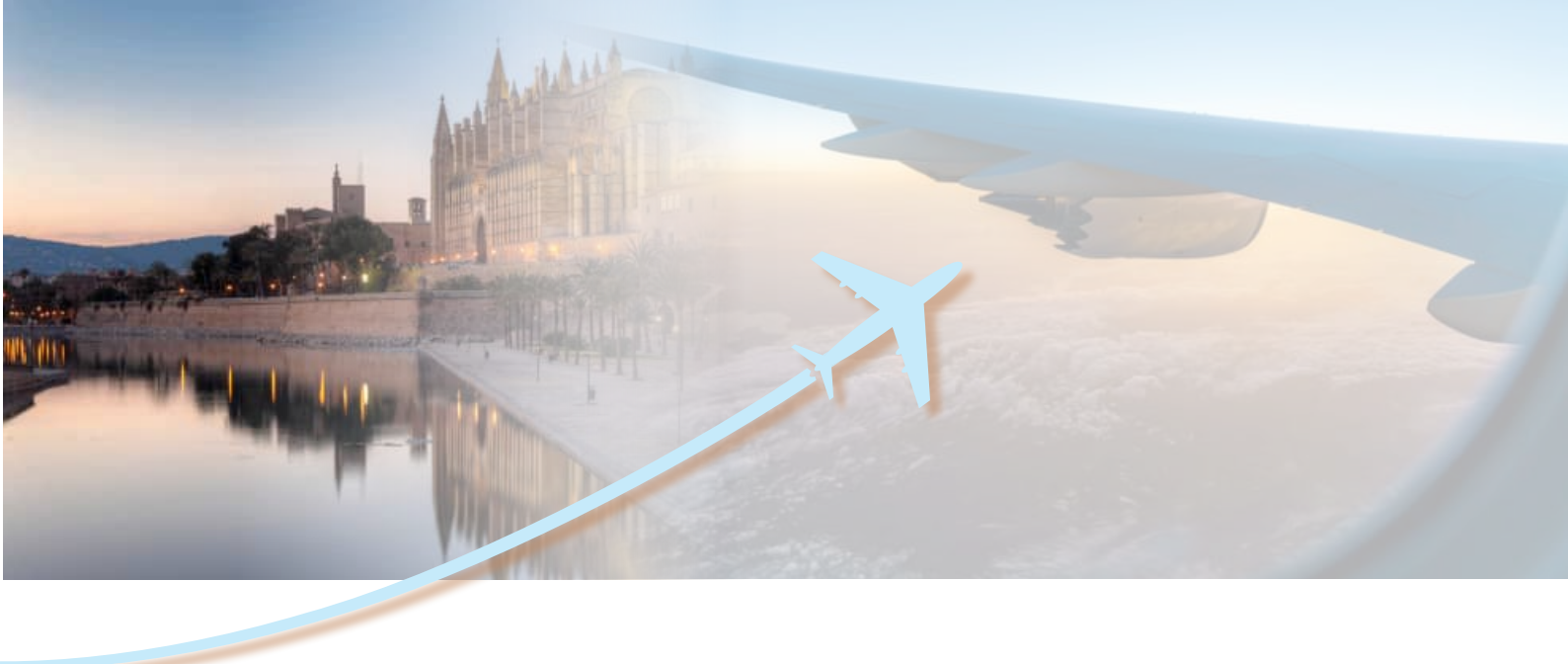
2017년 11월 24일(금),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공항버스는 요금이 15,000원이나 한다. 서울역에서
지공선사라 무료인 지하철을 탔다. 한동안 해외
여행을 하지 못하여 지하철을 타고 인천공항
까지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며
칠 전 미리 현장답사까지 했다. 여행 가방을
들고 에스컬레이터로 지하도를 오르내리는
것이 불편할 것이지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닐

것이기에 그 길을 택했다. 또 지하철은 시간 절약도 될
터이다. 지인들 말로는 서울역에서 공항까지 약 40분 정도 소
요된다고 하여 1시간 전에 탔으나 웬걸, 1시간 이상 소요되었
다. 그래서 만날 시간이 저녁 10시인지라 자칫하면 예정시간
에 늦을 것 같아 조금 늦겠다고 인솔자에게 전화했다.

인천공항 3층 M카운터에서 인솔자와 만났다. 5곳의 선택 관광
중에서 첫 번째 것에 대한 요금 30유로를 도로 내주었다. 영문
을 알 수 없었으나 그냥 받았다. 그만큼 여행비가 절약된 셈이
다. 전화통화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인상이 부드러웠다. 그가





전하는 일정표와 여행 편의품 등을 받고 수속을 마쳤다. 오랜만에 오는 인천공항은 생소한 느낌이었어서 얼떨떨했다. 밤 12시 45분 출발하여 이스탄불국제공항까지 11시간이 걸렸다. 전에 대한항공을 탔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고전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고 가면 어느 정도 지루함을 달랠 수 있었으나, 이번 터키항공은 그런 음악도 영화도 갖추지 않아 무료하기 짝이 없었다. 고전음악이라고 나오는 모차르트 음악도 죄다 편곡한 것이어서 흥미를 잃었다.

비행기 객실 안의 비행 안내 영상을 보니 인천에서 출발하여 중국대륙과 중앙아시아를 횡단하는 비행코스다. 이번엔 내가 놀란 것은 카스피해를 횡단하는 비행시간이 한 시간도 더 걸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카스피해는 한반도보다 더 넓다는 말인가? 그렇다. 카스피해의 넓이는 386,400km²이고, 한반도 넓이는 220,000km²이니 약 1.75배에 해당한다.

스튜어디스들은 모두 터키 여성들이다. 코가 뾰족하고 얼굴이 앞뒤로 긴 것을 보면 서양 여자들과 닮았다. 그러나 무표정에 가까운 그들의 표정은 동양인을 닮았다. 옛 돌궐 후예들의 표징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할까?

앞으로 9일의 이국 여행을 할 생각을 하니 설렘보다는 고역을 치를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누구 말마따나 집 나오면 고생이다. 우선 비행기 타는 것이 괴롭다.

밤을 꼬박 비행기에서 지새웠다. 이스탄불에 도착하니 아침 6시 50분이었다. 11월 25일의 시작이다. 환승비행장이라서 이스탄불에서는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없어 2시간을 기다리다가 8시 50분 비행기로 환승하여 바르셀로나로 향했다. 이스탄불과 바르셀로나는 2시간의 시차가 있어 그곳까지의 실제 비행시간은 약 4시간이다.

바르셀로나행 비행기를 타려고 승강대를 오르다가 승객들이 동쪽 하늘을 보고 “아, 장엄하다. 기가 막혀”하고 탄성을 발하기에 뒤편 하늘을 보았다. 거대한 둥근 바위 같은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햇살이 사방으로 퍼져서 하늘은 온통 진홍색 바다가 물결치는 것 같았다. 눈부신 햇살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이스탄불의 옛 영화와 같은 그 하늘의 장관이었다.

남유럽여행의 2일째도 비행기에서 시작되었다. 비행기는 지중해를 날아 이탈리아 남단 시칠리아 부근 상공을 지난다. 아프리카와 유럽의 중간지대, 질푸른 지중해는 꿈꾸는 듯 고요하다. 아침 세수도 면도도 못 했더니 얼굴이 까칠하다.

우스운 일화. 내가 스튜어디스에게 손가락 밑 터진 살갓에 붙일 반창고를 구했으나, 비행기 안에 없다고 하자 내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내 말을 듣고, 자기가 가져온 반창고를 대신 주었다. 그녀는 옆에 나란히 앉은 젊은이와 줄곧 다정한 속삭임을 이어오고 있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부부간에 해외여행 하시나요? 너무 정다워 보입니다.”하고 말했다. 여자는 갑자기 배꼽을 잡으며 웃음을 터트렸다.

“왜 그러세요?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아니요, 저 애는 내 아들이예요. 내년에 대학졸업반입니다.”라고 했다.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그녀는 전혀 타박하지 않고 웃음으로 대해줘 잠깐 파적의 시간을 가졌다.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리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주머니는 과연 50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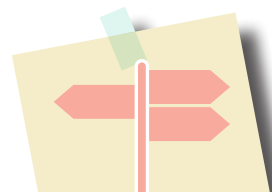
몬세라트 성당과 톱니바퀴

11월 25일(토),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여행 첫째 날을 맞이하였다. 비행시간은 4시간인데 시차 때문에 바르셀로나 도착시간은 현지시간으로 10시 40분경이었다. 스페인의 주요항구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상업중심지로, 문화도시로 뿐만 아니라 경치가 아름답다. 비옥한 평야 지대이며 기후는 온화하고 쾌적하다. 카탈루냐 지방의 주도로 인구는 약 150만 명인데, 주요산업은 제조업, 조선업, 관광업이다. 그러나 시 외곽지대는 대도시답지 않게 쓸쓸했다. 드문드문 이어지는 공장은 불이 꺼져 굴뚝에 연기가 나오지 않았으며, 담벼락에는 보기 흉한 낙서가 어지럽게 그려져 있다. 언제부터인가 빈곤이 찾아들고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제조업이 사양길에 든 것은 노동자의 권익이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도 우선하여 자본가들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도처에 만연해 있다. 사용자와 노동자가 싸우면 노동자가 이기며, 관광객과 노동자가 싸워도 노동자가 이긴다니 그럴법한 일이다.

자연은 의구하여 교외의 산아에는 송백(松柏)류가 지천으로 푸르고, 산록을 따라 샛노란 단풍이 우리에게 손짓한다. 정작 빨간 단풍은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다. 노란 단풍이 드는 나무는 미루나무와 사시나무 종류이고, 가로수로는 회화나무이다. 공과식물의 노란색 코트를 입은 회화나무에는 공알만 한 노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곳의 가을은 노란색과 청색의 잔치이다.

교외의 산정은 온통 톱니처럼 삐죽삐죽한 바위가 끝없이 이어지고, 평야 지대 언덕에는 풍력발전기가 지중해의 바람을 타고 실 새 없이 돌고 있다. 반가운 전언은 스페인은 전국 전력의 약 20% 정도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바르셀로나공항을 나와 전세버스로 몬세라트로 가는 도중 중식을 했다. 야채샐러드, 오렌지와 사과 등 과일, 구운 송아지고기였다. 마음에 드는 식사였다. 제법 그럴듯한 식당인데 퍽석부리 주인아저씨며 종업원들이 친절했다.





도로에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하는 산정을 둘러싸고 있는 톱니 바위들이 절정을 이루는 곳에 '몬세라트'가 있다.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뜻의 '몬세라트'는 바르셀로나 북서쪽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발 1,236m의 바위산이다. 카탈루냐의 수호성인인 '검은 마리아상'을 보관하고 있는 바실리카 성당과 베네딕트 수도회가 이 산의 해발 725m 고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스페인 가톨릭 최고의 성지인 만큼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신도들이며, 관광객이며, 트래킹족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은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가장 많은 영감을 얻은 장소라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그러고 보니 바르셀로나 대가족성당의 첨탑의 모양도 이 바위산의 양상과 비슷하다는 느낌이 든다.



스페인의 타지방과는 달리 산악지대여서 산양을 방목하는 목축업이 생업이었던 이곳, 하루는 목동들이 산 중턱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지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다음에도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어 그 빛을 비추는 곳을 찾아 따라갔다. 드디어 바위산 속에서 '검은 성모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전설은 대를 이어 전해졌고, 100년쯤 후 그 당시 베네딕트 신부들이 이 성모상을 옮기려고 하였으나, 꿈쩍하지 않자 포기했다. 세월이 흘러 그 지방의 주교가 두 번째 시도했을 때는 성모상이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 성당을 짓고 검은 성모상을 안치했다고 한다. 사원은 증축에 증축을 거듭하여 성당 본관, 박물관, 기념품 가게, 커피숍, 어린이합창단 건물 등이 빙 둘러 서있다.

가우디 성가족 대성당



나는 일행 몇 사람과 더불어 검은 성모상이 안치된 가장 깊은 곳까지 배알하고 나왔다. 여러 가지 요란한 장식품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당 본관 정면 벽을 장식하고 있는 12사도와 성모상이다. 자세히 보니 이오니아식과 코린토스식의 조각이다. 조각 하부벽면에 1900년이라고 크게 새겨진 것으로 보아 아마도 1900년에 그 부분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700m 고지에 그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이 예상일은 아니었을 텐데, 아무튼 각고의 성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산에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를 탔다. 마지막 급경사지 몇 m를 오를 때는 케이블카가 오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가이드가 죄 많은 사람이 타고 있으면 오르지 못한다고 너스레를 떠는 바람에 일행 중의 순진한 몇 사람은 얼굴이 검붉은 빛을 띠며 안절부절못했다. 내려올 때는 푸니쿨라(Funicular)라는 일종의 트램과 같은 것을 타고 내려왔다. 내려오면서 부부 바위, 코끼리바위, 뱀 바위, 토끼 바위 등 각가지 이름의 바위들을 올려다보았다. 사암과 역암으로 이루어진 바위산은 세월의 조각으로 온갖 기기묘묘한 만물상을 만들어냈다. 석회암 동굴의 석순(石筍)과 종유석(鐘乳石)들을 보는 것 같다. 고지에 있다가 평지에 내려오니 귀가 먹먹했다.

시내로 돌아오면서 서울올림픽 4년 후인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몬주의 올림픽주경기장을 구경했다. 5만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동편 입구 위 양쪽에 세운 청동 기마상이며 그리스 신전의 기둥을 닮은 기둥들이 한국의 올림픽주경기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보인다. 말하자면 옛날 로마나 그리스의 조각품을 조금이나마 모방함으로써 유서 깊고 장중한 전통을 살리려 했다고 할까?

탄성을 유발했던 성화대도 보았다. 그러나 화살을 쏘아 점화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실제로는 화살은 성화대 너머로 날아가고 성화대 밑에서 사람이 손으로 점화했다고 한다. 영상기술은 감쪽같은 눈속임을 가능케 한다.

바르셀로나올림픽 마라톤경기에서 우승한 황영조를 기념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바르셀로나가 공동으로 세운 기념비를 보았다. 기념비는 한국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곳에는 황 선수의 발 프린팅이며 달리는 모습의 부조도 있다. 황영조는 이렇게 몬주의의 영웅이 되었다. 주 경기장 북문 밖 언덕에 있는 비문을 읽을 때, 잔잔한 감동이 가슴에 일었다.

‘역사와 예술의 나라, 스페인 찬란한 고도 바르셀로나 이곳에 동방의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의 경기도 그 힘찬 빛이 같이 어리어 있나니 아, 이 뜨거운 우정, 만방에 영원하여라.’

몬주의 언덕은 원래 이곳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이 개종을 거부하고 순교한 곳이었다. 이를테면 유대인의 공동묘지였다. 요즘에는 올림픽경기장 외에도 여름밤에 화려한 분수 쇼가 펼쳐지는 카탈루냐미술관이며, 박물관, 장미정원과 야외무대, 그리고 바르셀로나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대가 있는 아름다운 공원을 이루고 있다.

버스를 탄 채로 시내로 들어왔다. 날이 저물어지고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고 가자. 기원전 133년에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Lucius Cornelius)가 레이(Laye)시를 정복하여 로마 식민지로 삼았던 데서 유래했다. 그 이래 4세기 프랑크족의 침략기와 5세기 서고트족의 침략기에 쇠퇴기를 맞았으나, 8세기 아랍민족의 정복으로 복구가 시작되어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바르셀로나가 화려했던 시기는 11세기에 시작되었고, 12세기에는 카탈루냐와 아라곤의 연합으로 알폰소(Alfonso) 1세가 최초의 백작 왕이 되었다. 13세기에 정복자 하메스 1세가 자신의 통치영역을 남쪽 발렌시아 왕국과 지중해까지 확장하여 위대한 카탈루냐-아라곤 연합을 만들었던 시기는 지중해 무역이 급속하게 확장되던 시기였다. 이때 고딕 예술의 걸작들이 출현했다. 오스트리아왕조의 통치 말엽 왕위계승 전쟁 때 오스트리아의 카를 대공(Archduke Karl) 편을 들었던 바르셀로나는 부르봉 왕가의 필립 5세가 승리를 거두자 다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이 도시는 지중해 도시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상공업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풍부한 건축양식,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켜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환상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다.

현대의 바르셀로나 건축물이 만들어진 커다란 두 가지 행사는 세계박람회(1888)와 만국박람회(1929)이다. 만국박람회가 개최되었던 에스파냐 광장과 레이나 마리아 크리스티나(Reina Maria Cristina) 거리를 버스로 달리며 우리는 티비다보(Tibidabo) 산을 배경으로 서있는 제1회 엑스포건물과 그 주변의 건물들을 돌아보

황영조 선수 기념비





카탈루냐 광장



카탈루냐 깃발

았다. 포근한 어둠에 싸이며 이방인들에게 무궁한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산의 신비한 모습은 그 산이 마치 이 도시의 수호신인양 보였다. 이 광장의 한쪽 편에는 이전 라스 아레나스(Las Arenas)투우장이 들어서 있고, 그 반대편에는 베네치아의 성 마르크(Saint Mark) 종탑을 모방한 두 개의 탑이 세워져 있다. 그것을 보니 과연 예술의 도시, 선각자들의 도시라는 감회가 새로웠다. 그러나 도시의 분위기가 요즘에는 어딘가 좀 정체되었다는 인상을 받았다.

저녁 5시경, 우리는 바르셀로나 중심거리인 카탈루냐광장에 도착하여 1시간가량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지금 광장화단에는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노닐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탈루냐 독립을 위한 집회로 떠들썩했던 광장이었지만, 지금은 시위는 없다. 람블라스 거리 맞은편에 카탈루냐 주정부청사가 있고, 거기에는 세네라(Senyera)라는 주기가 걸려있다. 이 깃발의 노란 바탕은 카탈루냐의 황금빛 대지를 상징하고, 붉은 줄은 카탈루냐 독립투사들의 손에 묻은 피를 상징한다. 지금 독립파들은 에스테라다(La Estelada)라는 더 강력한 독립 의지를 표방하는 기를 선호한다. 카탈루냐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이유는 역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유가 있다. 1469년 바르셀로나 중심의 아라곤 왕국은 페르난도 왕자가 마드리드 중심의 카스티야 여왕 이사벨과 결혼하면서 카스티야에 합병되었고, 이후 1714년 국왕 펠리페 5세의 스페인에 완전히 점령되었다. 스페인의 다른 지역보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이룩한 카탈루냐 지방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여 세금도 많이 내는 지방인데, 이 높은 세금은 카탈루냐 지방보다는 중앙정권지대인 카스티야 지방에 집중투자되거나, 상대적으로 빈곤한 남부지방에 사용됨으로써 이 지방 사람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어왔다.

5만㎡에 이르는 광장의 가운데에는 조셉 클라라의 작품 ‘청춘’이라는 여인 입상과 ‘여신’이라는 좌상, 그리고 ‘도시의 알레고리’라는 청동상, 파블로 가르가요의 작품 ‘양치기’ 등이 두 개의 커다란 분수를 둘러싸고 광장을 차지하고 있다. 마치 심장에서 동맥이 퍼져나가듯 카탈루냐광장으로부터 바르셀로나의 모든 간선 도로가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그중에 람블라스(Rambblas)거리는 서머릿 몸의 말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다. 람블라스라는 말은 복개를 의미한다. 즉 강을 복개한 거리다. 이 거리의 직선 구간이 시작되는 카날레테스(Canaletes) 거리에는 청동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의 물을 마시는 방문객은 곧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속설이 있다. 세계인들에게는 몇 개월 전 테러가 발생하여 더 유명해진 곳. 카페, 생선가게, 과일가게, 과자가게, 꽃가게, 관광객자와 기념품을 파는 가게, 옷가게 등 온갖 잡화를 파는 상점들이 운집해있다. 플라 데 라 보케리아(Pla



람블라스 거리

de la Boqueria) 시장 안 음식점에서는 여행객들인지 현지인들인지 너도나도 간이탁자에 앉아 게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다. 그곳 음식점에 전시된 수많은 음식들은 꼭 채색을 한 것처럼 호화로웠다. 만화경이라고 할까?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밤거리는 번잡하기 짝이 없다. 한국의 명동만큼이나 북적이다. 그 거리 중간쯤에서 양팔이 마비되어 발로 글씨를 쓰는 지체부자유 청년을 보았다. 파골이 상점한 그는 다른 행인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홀로 발가락 사이에 펜을 끼어 열심히 종이 위에 글을 쓰고 있었다. 행인들이 더러 그가 쓴 글씨를 사가기도 했다. 시장 구석에서 손풍금을 켜는 난쟁이 거리의 악사는 쉬지 않고 알 수 없는 곡을 연주하고 있다. 가 우리 일행 중 조씨가 '라 파로마'를 주문하자 신이 나서 그 곡을 연주했다. 다 듣고 나서 그는 유로 1달러를 모자에 던져 주었다. 그런가 하면 무턱대고 따라다니며 돈을 요구하는 거지들의 억지에 애를 먹었다. 스페인에는 거지가 많다. 그만큼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란다. 스페인에서는 소매치기와 거지를 조심하라는 인솔자의 주의가 귀에 다가올 지경이다.

이 거리를 걸어 항구 쪽으로 가다 보면 높이 80m 이상의 청동탑 위에 대항해 지구본을 밟고 서 있는 콜럼버스 동상이 서 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이사벨 여왕의 후원으로 바르셀로나 포트벨 항구를 출발해 서인도제도를 발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1888년 세계박람회 때 세운 동상인데, 그의 오른팔이 정확히 대서양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보내고 일행은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수천 척의 크고 작은 선박들이 정박해있는 항구-바나나며 종려가로수가 이국적인 정취를 물씬 풍기는 부두 거리를 지나 식당으로 갔다. 더러더러 녹나뭇과의 상록수들이며 극락조화며 유도화 등이 한국의 제주도와 흡사한 풍경이었다. 또 동백나무를 보니 고향집 정원이 생각났다. 나는 오늘 저녁에야 비로소 바르셀로나가 항구도시라는 것을 실감했다. 가로등과 배에서 비추는 현란한 불빛으로 항구는 대낮처럼 밝았다. 항구도시라서 저녁 식사로는 '빠에야'라는 스페인 전통요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비프스테이크가 나와서 일행은 다소 실망했다.

호상 113호에 계속 연재

사 진 출 처



- 가우디 성가족대성당
- 몬세라트 성당과 톨니바퀴
- 황영조 선수 기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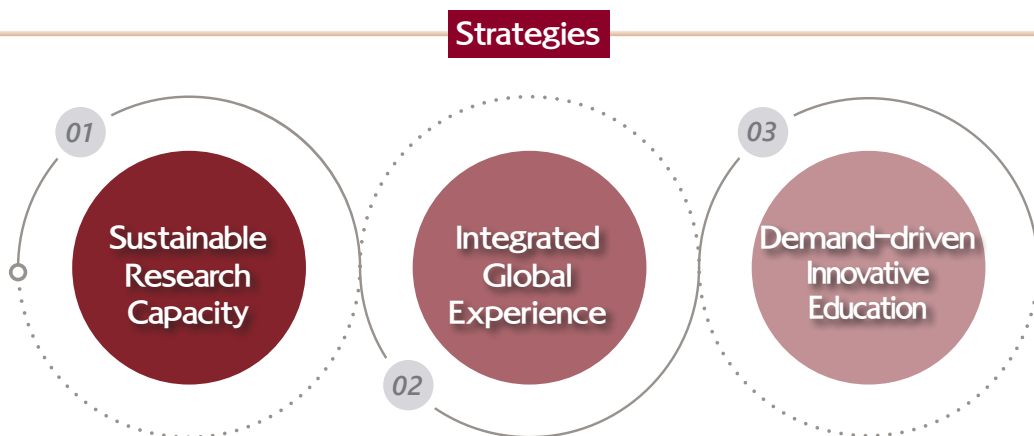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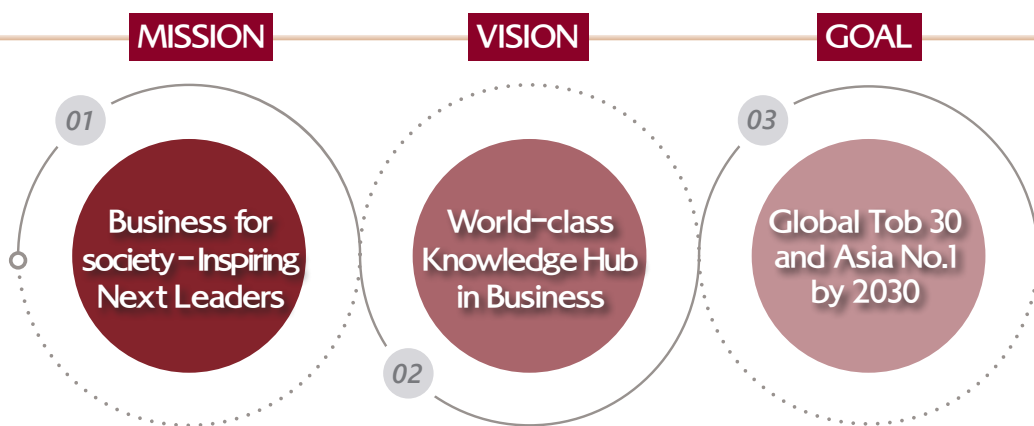
- 까탈루냐 광장
- 람블라스 거리

허창무 교우 제공
허창무 교우 제공
[김재원 특파원의 여행스케치]
바르셀로나의 몬주익 언덕의 황영조 동상(5)
스포츠헤드(2013년 5월 28일자)
H10hotels
스페인관광청



Business for Society – Inspiring Next Leaders

2030년까지 **Global Top30, Asia No.1** 수준의
Business School 달성





‘고려대학교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 개최

코로나19로 인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100인 미만 참석

고려대와 고려대학교 교우회는 5월 5일(수) 오전 10시 인촌기념관에서 <고려대학교 개교116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작년과 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00인 미만이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특별공로상 ▲사회봉사상 ▲Crimson Award(발전공로상) ▲KU Pride Club Award ▲공로상 ▲교우회 모범지부상 ▲석탑강의상, 석탑연구상, 석탑기술포상 등의 시상식이 있었다.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교우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연만희 유한양행 고문(경제49)과 김상희 한국연예인한마음회 이사장(법학6)이 수상하였다. 연만희 교우는 수상소감에서 90평생을 고대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 살아온 것에 대해 격려로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까지 여정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다. 김상희 교우는 “긴 세월 노래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뵈신 지 40여년이 지났다. 함께했던 어르신들이 떠나실 때마다 슬펐지만 그 날들이 지금까지 올 수 있도록 했다. 결코 저 혼자 힘으로 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많은 분들과 추억 덕분에 고대 출신이라는 무게를 견디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특별공로상은 지난 12월에 작고하신 **故 김동기**(상54/경영대학 명예교수) 전 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이 선정되었다. 시상은 **故 김동기** 명예교수를 대신해 아들인 **김종윤**(불문86) 교수가 대리로 수상하였다.

사회봉사상은 **이재훈**(의학86) 교수가 수상하였다. 이재훈 교수는 1993년 의과대학 졸업 후 의료선교사로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의료인 교육훈련, 급식사업, 아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이재훈 교수는 국민훈장 목련장, 이태석상, 아산의료봉사상, 마다가스카르 국민훈장 기사장을 수상한 바 있다.

Crimson Award는 발전공로상으로 모교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인물의 공로를 기리고자 제정되었는데 **박기석**(독문69) 시공테크 회장이 수상하였다. 박기석 회장은 1994년부터 모교발전기금, 우정정보관 건립기금, 장학기금 등 기부금을 꾸준히 기부하여 왔다. 지금까지의 누적 기부금은 약 24억 원에 이른다.

KU PRIDE CLUB AWARD는 소액정기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KU PRIDE CLUB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시상하는데 올해는 **윤화일**(경제63) 교수가 선정되었다. 윤 교수는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KU PRIDE CLUB에 가입하도록 기부를 권유하여 74명(82구좌)을 가입시켰다.

교우회 모범지부상은 싱가포르 교우회(회장 : **이종진**/경영8)와 도봉강북교우회(회장 : **윤록림**/화학78)가, 공로상은 지난해 입학 30·40주년 모교방문축제를 준비한 80, 90학번 교우들이 수상하였다. 80학번은 **박해식**(법학) 동기회장과 **윤승호**(영문) 사무국장이, 90학번은 **최창규**(경영90) 준비위원장과 **김준수**(사회) 집행위원장, **조인호**(영교) 기획위원장이 수상하였다.

2020년도 2학기 수강자의 강의평가에서 평균점수가 상위 5% 이내의 교원 139명이 석탑강의상을 받았다. 또한 전년도 기술이전 실적 상위 연구자들 12명에게는 석탑기술상이, 전년도 연구업적 상위 3% 이내 교원 52명에게는 석탑연구상이 주어졌다.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우리 고대인들은 시대가 어려울 때 위기를 잘 극복하여 왔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불굴의 정신이 바로 고대정신이다.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대인 모두가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백여 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불



특별공로상 | **故 김동기** 명예교수 장남 대리 수상



교우공로상 | **최창규**(경영90), 오른쪽에서 첫 번째



석탑강의상 | **최우석**(경영89) 경영대 교수 대표 수상

확실성을 마주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고려대학교가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갖추게 된 것은 바로 고대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학교 발전을 기원하고 지혜와 힘을 모았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마주한 각종 과제들도 자랑스러운 고려대학교 역사의 어느 한 페이지에 찬란한 성과로 기록되리라 확신한다. 이 엄숙한 과정에 동참해 주시고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자열(경영72) 교우회장은 4년 후, 개교 120주년에는 모교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사학이자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교수님들께서는 창의적인 연구로 모교의 학문적 위상을 높게 세워 주시고, 재단에서는 열성적인 지원으로 모교의 경영이 탄탄해지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재학생들은 고대인다운 열정과 패기로, 활기차고 역동적인 대학문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교우회는 언제나 그러했듯, 선후배 간의 강인한 결속력으로 아낌없는 모교 사랑을 실천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korea.ac.kr



14개 대학총장들과 서울시장, 서울캠퍼스타운 발전방안 토론

고려대, 제10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개최

서울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회장대학인 고려대학교는 5월 6일(목) 오후 4시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제10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책협의회 회원, 대학 총장 간 ‘서울캠퍼스타운 2.0 계획’을 공유하고 캠퍼스타운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는 캠퍼스타운 정책방향 협의·자문·지원의 역할을 하는 정책거버넌스로서 총 50명(49명 대학총장, 서울시장)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장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다. 2016년 11월 제1회로 시작하여 올해 6년 차를 맞이했다. 제10회 정책협의회에는 회장단 대학 총장 14명, 서울시장,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성공창업가 백재현 (주)에이윅코리아 대표 총 16명이 참석했다.

정진택 정책협의회장(모교 총장)은 “서울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통해 회원 대학의 성공 사례, 시행착오 경험을 공유하고 대학

별로 축적 중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노하우를 학습하면서 대학 간 협력을 꾀하고 있다.”라면서 “대학이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은 혁신적인 도시 발전 선도모델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9년 서울시장 재임시절부터 구상했던 캠퍼스타운 사업 아이디어의 씨앗이 실제로 구현된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며 “향후 마련될 민선 7기 서울캠퍼스타운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권역별 캠퍼스타운 벨리를 구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 유니콘을 품은 캠퍼스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청년·대학·지역과 함께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의견과 대학, 자치구, 캠퍼스타운 사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민선 7기 서울캠퍼스타운 계획’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www.korea.ac.kr



65년만의 첫 '비대면 고연전'... 응원전·기차놀이는 못 해

국내 주요 사립대인 고려대·연세대 간 교류전 '고연전(연고전)'이 65년 역사상 첫 '비대면 대회'로 치러진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취소됐지만 올해는 '비대면'으로라도 전통을 잇기로 한 것이다.

25일 올해 행사를 주관하는 연세대에 따르면, '2021 정기 고연전'은 오는 9월 10일부터 이틀간 무관중,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다. 올해 대회의 공식 명칭은 '고연전'. 두 학교는 번갈아가며 대회를 주관하는데, 홀수 해엔 연세대가 주관하고 '고연전'이라 부른다. 고려대가 주관하는 짝수 해엔 '연고전'이다. 매년 주관 학교에서 개최 여부와 구체적 행사 내용을 결정해 상대 학교에 전달하는데, 서승환 연세대 총장이 최근 정진택 고려대 총장에게 이 같은 내용의 대회 개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에는 기존처럼 두 학교 대표 선수들이 농구·축구·야구·아이스하키·럭비 등 5개 종목을 겨룬다.

잠실실내체육관, 효창운동장 등에서 무관중으로 진행하고, 이를 온라인 생중계한다.

다만 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양교의 '학생 응원전'은 생략된다. 대회 종료 후 학생들이 캠퍼스 인근의 신촌(연세대), 안암동(고려대) 음식점·술집에 몰려다니며 무료로 음식·술 등을 먹었던 전통적인 뒤풀이 행사 '기차놀이'도 진행되지 않는다. 연세대 측에선 '비대면 대회' 속에서도 양교 학생들의 교류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가 이달 초 학생 2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2.1%가 '개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연세대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과 학생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비대면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6월 26일자 조선일보 발췌

2020학년도 2학기 석탑강의상 수상



박경삼 교수



이재혁 교수



장진욱 교수



최우석 교수



황준호 교수

* 가나다 순

경영대학 전임교원 5명의 6개 강의가 2020학년도 2학기 석탑강의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및 선정된 강의는 △박경삼 교수 · 경영과학 △이재혁 교수 · 국제경영론 △장진욱 교수 · 비즈니스협상(영어강의), 조직행동론(영어강의) △최우석 교수 · 중급회계 I (영어강의) △황준호 교수 · 재무관리(영어강의) 등이다. 석탑강의상은 강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본교가 2004년 1학기부터 '강의평가 인센티브제'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 학기 말 해당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이 작성하는 수강소감 설문 평가 점수로 수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전공수업은 단과대학별 개설 강좌 수의 상위 5%, 교양과목은 전체 대상 강좌 수의 상위 5%, 영어강의는 계열별 대상 강좌 수의 상위 5%에 속한 전임교원에 수여된다. 한편 석탑강의상 외에도 상의 20% 강좌에 수여되는 우수강좌에는 경영대학 전임교원 14명의 17개 강좌가 선정되었다.

2020학년도 제6회 석탑연구상 수상



김창기 교수



편주현 교수

* 가나다 순

경영대학 김창기 교수(재무금융 전공)와 편주현 교수(국제경영 전공)가 2021학년도 제6회 석탑연구상을 수상했다. 석탑연구상은 탁월한 연구 성과로 고려대 연구력 향상에 기여한 교원을 포상해 널리 알리고, 장기적으로 연구를 장려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6회 석탑연구상 수상자는 2020년도(2020년 1월~2020년 12월) △학술논문 △학술단행본 △연구 수주 실적을 기준으로 △연구의 질 △연구의 양 △연구비 수주액을 합산한 상위 3%와 N.S.C.(Nature, Science, Cell) 학술연구 논문게재 주저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51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이준만 교수

경영대학 이준만 교수가 국내 최고 권위 경제 · 경영 논문상인 제51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했다. 이 교수는 'CEO의 조직 동일시 현상과 창업자 승계결정 연구' 논문을 발표하며 경영학계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번 연구는 CEO의 기업승계 결정에 작용하는 심리적 요인을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밝혀내 글로벌 학술지인 경영학회 저널에도 실리며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교수는 기업을 경영한 기간이 길수록 최고 경영자(CEO)가 기업 승계를 꺼린다는 상관관계를 규명했다.

경영신문 제693호, 매일경제(2021년 4월 14일자) 발췌



산학협력 프로그램 진행한 'KUBS-한라그룹' 제5기 '한라 Halla Business School Plus' 과정 수료식 열려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임원교육센터 Executive Education Center(센터장 배보경)가 주관하는 제5기 한라 HBS+(Halla Business School Plus) 과정 수료식이 4월 30일(금) LG-POSCO경영관 6층 안영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배종석 경영전문대학원장, 유용근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김언수 주임교수 등 고려대 경영대학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정몽원(경영74/경영대 교우회 명예회장) 한라그룹 회장과 한라그룹 주요 임원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인 한라 HBS+ 과정은 그룹의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경영 통찰력과 시장 선도력을 갖춘 미래 경영자 육성을 목표로, 한라그룹 내 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7개월 단기 교육과정이다. 2020년 연말 예정이었던 이번 5기 HBS+ 과정 수료식은 코로나 19로 인한 일정 연기로 이날에서야 뒤늦게 이뤄졌다.

수료식은 배종석 경영전문대학원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배종석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과정을 수료하신 것은 경영전문대학원에 명예로운 일인 것은 물론, 회사 입장에서 도 큰 투자”라며 “힘든 시기지만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어 강의를 이끌어 준 교수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평소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과정이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축사를 이어갔다. 정몽원 회장은 두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하며 “가장 믿을만한 투 자처는 자기 자신이라는데, 평생 계속해서 배우려는 마인드 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기업의 성장 과 안정,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므 로, 사람에 대해 민주적(Democratic), 개방적(Open)이며 자유 로운(Free) 마인드와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수료생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수료 생들은 “H: 힘들었지만, B: 보람 있는, S: 시간, +: 더 해졌던 6개월”이었다.(최인명 상무), “문제를 헤쳐 나갈 손 전들을 얻은 것 같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뉴노멀 시대를 잘 헤쳐 나가겠다.”(이재영 상무) 등으로 소감을 전했다.

경영대학 홈페이지 발췌



본관 앞 길

2021년 고대 캠퍼스의 여름

학기가 시작되면 왁자지껄, 시끌벅적 떠들던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함성, 진리탐구의 열기가 캠퍼스를 가득 메웠지만, 그렇게 뜨거웠던 캠퍼스는 온데간데없고 조용한 캠퍼스가 낯설어 아직도 어색하다. 지금까지 없었던 혼란가운데 2020년에 이어 2021년도도 한적하고 고요한 캠퍼스는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으며 담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꽃을 피우는 봄을 보내고 어느덧 싱그러움이 가득한 여름이 되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보기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모두 잃은 건 아니다.
매일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다른 학생들을 대면하여 수업을 들던 시간들, 머리 싸매며 함께 과제에 몰입했던 순간들, 매일 걸던 다람쥐길과 교문을 지나는 길에 있는 여름 꽃 능소화마저 소중해졌다.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하고 당연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하는 시간들이다.

2021년 1학기 중강 후 찾아온 여름, 캠퍼스는 더위로 뜨겁지만 녹음이 우거진 캠퍼스를 천천히 거닐어보자.

캠퍼스에 머물러 길을 따라 거닐다

고려대학교 캠퍼스는 자연이 어우러진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아름다운 캠퍼스다. 여름에는 나무들이 푸른 숲으로 이뤄 그 아래에서 잠깐 쉬어가기가 좋다. 특히나 본관 뒷길, 서쪽에서 동쪽을 잇는 산책로인 다람쥐길은 고려대학교의 대표적인 길이라 할 수 있다. 원래 다람쥐길은 길이 아니었고 본관 앞의 길을 걸어 다녀야 하는데 수업시간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지름길로 본관 뒤 수풀 속을 뛰어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길이 생겨났고 거기에 돌담도 만들어 놓아 이제는 ‘고려대의 길’하면 자연스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길이 되었다. 여름이 되면 울창해져 뜨거운 여름 햇볕을 막아준다. 이 길을 걷다보면 작은 다람쥐 조형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돌보는 학생이 있는지 때로는 과잠(고대 야구잠바)을 입고, 때로는 따뜻한 스웨터를 입는다. 요즘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가끔 청설모와 줄무늬 다람쥐가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람쥐길에서 서쪽으로 직진하게 되면 다람쥐 조형물을 지나 고목나무의 푸르른 여름 잎을 통과하는 햇살의 공간이 보인다. 오랜 세월동안 자리를 지키고 서있는 문과대학 서관의 고즈넉함이 이 햇살의 공간과 어우러져 절묘한 풍경이 연출된다. 본관과 함께 오랜 세월을 담은 공간이라 요즘 새롭게 지어진 신관들과는 다른 고풍스런 멋을 느낄 수 있다. 해질 때쯤이면 저녁노을이 시계탑에 스며들어 신비롭다. 이 길은 본관과 국제관, SK미래관으로 연결된다.



다람쥐길의 조형물



다람쥐길 초입



다람쥐길



다람쥐길의 청설모



SK미래관에서 문과대 서관으로 가는 길



문과대 서관



인촌기념관 가는 길



SK미래관 앞 돌기둥 길



인촌기념관에서 북악산로와 연결된 길



인촌기념관 앞 분수대



백주년 기념관 옆 문인석길



경영대로 끼는 저름길

문과대 서관을 향해 다람쥐길을 걷다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인촌기념관이 보인다. 이곳은 굽직한 고려대 기념행사가 치러지는 곳이다. 여름만 되면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분수를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잠시 쉬는 중이다. 인촌기념관을 지나 오른쪽으로 오르막길을 가다보면 북악산로와 연결된 길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 뒤를 돌아보면 양쪽에 있는 나무들과 인촌기념관의 지붕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뷰 포인트가 되는데 한여름의 청량함으로 눈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곳은 계절마다 다른 느낌을 주어 다람쥐길과 함께 많은 이들이 손꼽는 길이다. 또한 이 가파른 오르막길 끝에 작은 문을 지나면 개운산 숲 나들길로 산책 할 수 있다.



백주년 기념관에서
호상으로 가는 길



본관과 중앙도서관

변화의 싹을 틔우기 위해 잠깐 쉬며 떠나는 길

정경대 후문에서 국제관까지 나있는 비탈길은 빌딩풍보다 더 강력한(?) 바람골이라 폭풍의 언덕이라 불린다. 봄부터 겨울까지 항상 바람이 부는데 겨울에는 매섭고 독한 바람이 불어 마음까지 공공 열게 만들지만 여름에는 그늘 길로 걸으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마음마저 시원해진다. 중간 중간 쉴 수 있는 벤치들이 있어 비탈길을 오르다 잠시 쉬며 더위를 잠시 잊는 것도 좋다.

고대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고딕양식의 석조건물인 본관은 낮과 밤이 다른 매력이 있다. 낮에는 한여름 중앙광장의 파란잔디와 주변에 우거진 나무들과 함께 웅장함을 보여주고 어둠이 깔리면 시간의 흐름을 잊고 그동안의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모습이 은은한 조명으로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호상을 향해 넓고 길게 뻗은 길을 걸으면서 그동안 수십년의 고대의 역사를 떠올리며 고대인의 기상을 느껴보는 것도 더없이 좋다.

지면의 한계로 소개하지 못한 많은 길들이 있다. 운초우선관과 사범대 신관 사이에 있는 좁은길, 본관에서 문과대 서관으로 올라가는 비탈길, 이공대의 애기능길.. 분주했던 일상에 휴식을 주고 쉽게 지나쳤던 캠퍼스 곳곳을 돌아보며, 생각에 잠기며, 추억을 상기시키며 자기만의 템포대로 시간을 내어 고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길을 걸어볼 것을 권한다.

본관 뒷 길



정경대 후문(폭풍의 언덕)

불안한 코로나19 경기회복, 경제 부도위기가 다가온다

경영대 명예교수·16대 총장
이 필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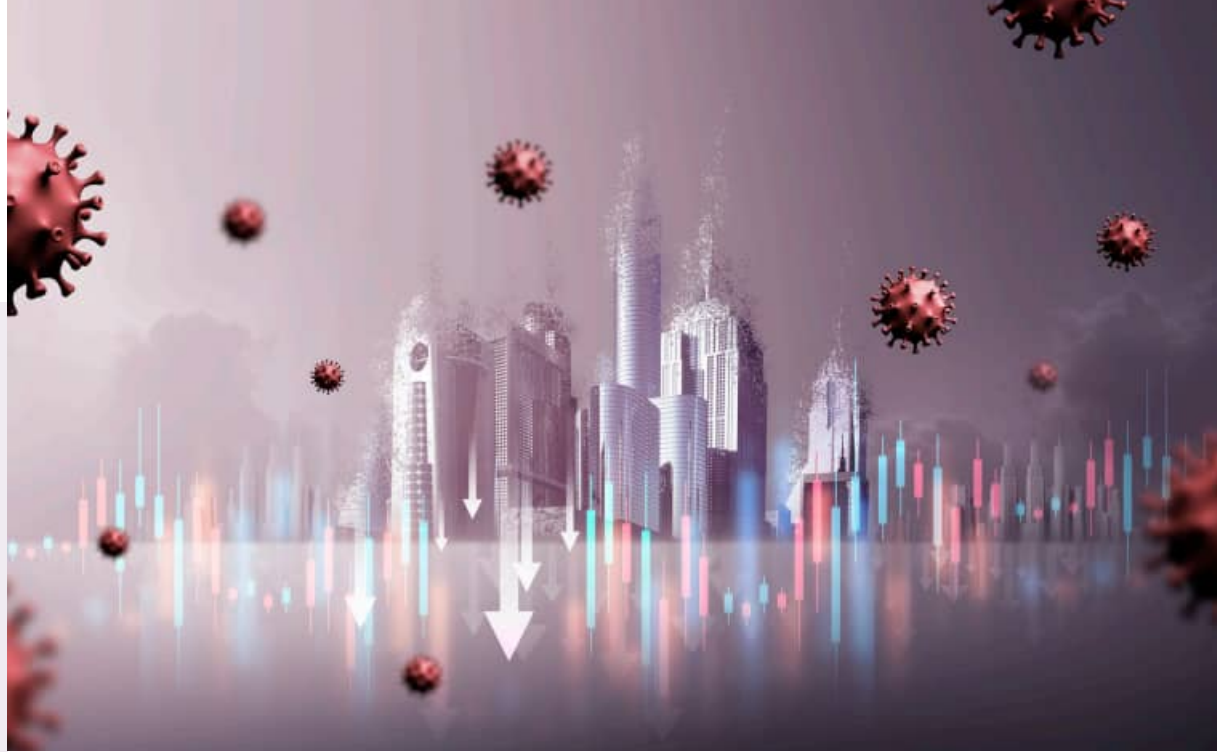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의 역습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해 3,032억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 3저 현상으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1980년대 말 이후 최고의 성장세다.

특히 지난 6월 수출액은 작년 6월 보다 39.7% 증가한 548억달러를 기록해 지난 3월부터 연속 4개월 500억달러를 넘겼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일반기계를 포함한 15대 주력 품목과 중국, 미국, EU, 아세안, 일본 등 9대 수출지역에서 모두 수출이 증가하는 기록을 낳았다. 내수도 늘고 있다.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2월 10%, 3월 18.5%, 4월 13.7%, 5월 12.9% 등 4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 회복하는 양상이다. 현 추세로 갈 경우 우리경제는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악화하고 있다. 4차 대유행이 나타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가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어 통제가 어렵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를 계속 압박할 경우 경기회복은 곧바로 허상으로 바뀔다.

최근의 수출증가는 단기적인 반등현상으로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출이 증가하는 기업보다 감소하는 기업이 많아 올해 하반기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실로 큰 우려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이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나타나 역설적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부도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이 풀린 돈이 뇌관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한계선으로 여겼던 국가채무비율 40%를 초과해 재정지출을 사상 최대규모로 늘리고 있다. 올해 국가채무가 965조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25%에 묶어 놓고 계속 돈을 풀고 있다. 통화량(M2)이 지난 4월 기준 3,363조7천억 원에 달한다. 작년 동월 대비 11.4%나 불어났다.



이미 물가가 오름세다. 지난 6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2.4% 상승해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0.3%였다. 이때 까지만 해도 물가수준이 낮아 생산과 투자가 위축되고 이것이 실업증가와 소득감소로 이어졌다. 최근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서자 상황이 바뀌었다. 물가상승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회복을 막고 실업난과 서민들의 생활고를 가중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금리인상이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이 연쇄부도의 위험에 처한다. 현재 가계부채는 1,765조원 규모로 GDP의 91.7%에 이른다. 지난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5871개 중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전체기업의 34.5%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면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경제가 겹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다. 정부는 스스로 부채가 많아 재정지출로 경제혼란을 수습할 능력을 잃고 있다. 자칫하면 가계, 기업, 정부가 연쇄적으로 부도위기에 빠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금융불안과 미중 경제전쟁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미국이 경기회복세에 힘 입어 금리를 인상하면 국제금융시장이 위험하다. 미국은 1990년대 초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8.0%에서 3.0%에서 내린 바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은 곧바로 기준금리를 3.0%에서 다시 6.0%로 올렸다.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1995년 남미 금융위기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미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4년 6.25%에서 1.0%까지 내렸던 기준금리를 물가불안을 우려해 2006년 5.25%로 다시 올렸다. 이후 2008년 월(Wall)가가 무너지고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해 한국을 포함해 세계각국 경제가 타격을 받았다. 경기회복세가 가

시화하면서 지난 6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5.4%올라 13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0~0.25%인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경제 주도권을 놓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국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저개발 국가 인프라 건설에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을 내세운 이 사업은 미국의 주도하에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이 경제영토 확장 전략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사업을 제압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은 정면으로 맞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중압박을 겨냥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국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전쟁은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다. 경제패권을 놓고 두나라 중 한나라가 쓰러질 때까지 싸우는 무한전쟁이다. 한국경제는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양국의 틈에 끼어 포로 상태가 되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기편을 들라는 압력을 받으며 거절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경제압력에 불응하면 군사나 안보문제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내부적으로 한국경제는 산업발전과 성장동력이 꺼지는 악재를 안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불안과 기업환경의 악화로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화학 등의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투자를 멈추고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을 추진했다. 생존기반이 불안한 중소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겨 국내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정부의 기업우대정책에 따라 기업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자국을 다시 찾지만 한국기업들은 나라를 떠나는 형국이다.

미래산업 발전과 기업 살리기

그렇다면 한국경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 백신접종을 서둘러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회복세를 이어가야 한다. 다음 경제가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의 압박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필수적인 것이 자금흐름 개선과 산업발전의 활성화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기업의 창업과 투자로 흐르게 해 산업을 발전시키면 물가상승 압박

이 감소하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제가 성장동력을 찾아 일자리를 만들며 소득을 증가키는 궤도에 들어설 수 있다. 더욱이 부채상환능력이 커져 가계와 기업이 부도위기를 피하고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대외적으로 한국경제는 미중 경제전쟁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한국경제가 힘을 잃어 양국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 희생의 위기를 맞는다. 반면 강력한 경제력으로 양국이 압박대신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첨단기술로 무장한 미래 산업을 적극적으로 일으켜 경제강국의 힘을 기르는 것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다.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은 한국경제의 숙명적인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은 경제핵무기나 마찬가지다. 먼저 개발해 보유하는 나라가 경제전쟁에서 승리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문제다.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기업을 보호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집중적으로 펴고 있다.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정책을 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최근 미중 경제전쟁이 확대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한국은 정부가 기업과 시장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면서 재정지출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을 주요정책으로 펴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낮춰 통화공급을 대폭으로 늘렸다. 결과는 경제의 역주행이다. 경쟁국들에 비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거품으로 들쭉났다. 국가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해 국민들 감당이 어렵다. 고용창출능력을 상실해 실업난이 악화하고 빈부격차가 더 커져 서민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이념과 정치의 인질로 잡힌 정부정책이 경제의 추락을 유발하고 경제전쟁의 희생물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다. 다른 나라들과는 반대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시장이 기능을 잃고 있다. 기업인은 자칫 정부규제를 어기면 중죄를 저지른 범인으로 취급을 받는다. 친 노동정책을 강화해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고용정책을 막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고 법인세를 인상해 정상적인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이 기업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고 세금 올리며 처벌하는 정책이다. 자연히 자본주의 영혼인 기업이 정신이 사라져 창업, 투자, 신산업 발전이 힘을 잃고 있다. 영토전쟁은 군대가 하지만 경제전쟁은 기업이 한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국민경제를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기업들이 전의를 상실한 상태다. 경제전쟁에서 희생되면 나라는 미래가 없다. 한국경제에 시간이 부족하다. 정부경제정책의 대전환과 산업혁신 및 기업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팔을 걷어 올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경제는 안팎으로 지뢰가 터지는데 정치권과 정부는 정치전쟁과 선거 선심용 돈물기에 여념이 없다.

인생의 중간고사와 ESG경영

경영대학 교수
문정빈



91학번인 저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에 보였던 30년 선배 교수님들 (61학번)은 할아버지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 올해 신입생들보다 30년 선배인 교수가 되어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현타”가 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나이를 먹었구나, 더 이상 아직 젊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겠다는 자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지나온 인생을 돌아켜 보게 되었습니다.

직업이 교수인지라 시험을 채점하고 성적을 매기는 일이 본업인 셈입니다. 이참에 스스로의 인생에 성적을 매기는 시도를 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인생에는 무슨 과목들이 있을까요? 얼추 생각해 보니 건강, 직업, 자산, 가족, 자식 정도가 제게 중요한 과목들인 것 같아 각각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상위 몇 % 정도 될 것 같다는 상대 평가가 가능한 과목도 있었고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평가를 마치고 보니 나름 선방해서 A를 주고 싶은 과목도 있었고 겨우 낙제를 면한 것 같은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세상이 좋아져서 우리나라 50세 남자의 기대 여명이 32년이라고 하니 성인이 되어 이제 30년을 살았고, 확률적으로 앞으로 30년 정도가 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 이번 평가는 중간고사인 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 중에는 중간고사를 망쳤지만 기말고사에서 만회하여 A를 받은 학생도 있고, 중간고사를 아주 잘 봤지만 방심했는지 기말고사를 망치고서 B를 받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본보기로 삼아 A를 받은 과목은 꾸준히 노력을 하고, 나쁜 학점을 받은 과목은 앞으로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돈금 없이 인생의 중간고사 얘기를 꺼낸 것은 사실은 제 전공 분야인 ESG경영 얘기를 드리 고자 함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화두가 된 ESG경영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 조(Environmental, Social, & Governance)의 영어 첫 글자를 딴 용어으로써 기업이 비재무적 경영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말합니다. 그동안 사회책임경영, 지속가능경영 등의 개념들이 있었지만, ESG경영은 투자자들이 앞장서서 경 영진에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배려하는 경영 방식을 요구하며, 따라서 과거에 비해 엄밀 한 측정과 분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을 때에는 기업이 일단 돈을 버는 것이 우 선이었고 그를 위해 닥치는대로 일하고 닥치는대로 만들어 수출하는 것이 사회에 가장 필 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환경 파괴, 정경유착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한 지금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만큼 중요합니다. 엔론이나 리먼 브라더스처럼 업계 최고 수준의 기업 이 한순간에 파산할 수도 있고, BP, 폭스바겐, 남양유업처럼 하나의 잘못으로 기업가치의 몇 분의 일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보면 눈앞의 이윤을 쫓다가 주주들에게도 큰 손해를 끼치고 말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기업이 생산한 가치를 이해관계자들과 잘 나누는 것이 주주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당장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아니라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를 살펴 보 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과 학문적 연구들이 축적되어 투자

자들이 먼저 비재무적 성과(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흔히 ESG 경영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는 밀튼 프리드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프리드먼 역시 기업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그의 기고문 문장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게임의 룰을 지키는 한에서, 다시 말해 사기나 속임수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벌이는 한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자원을 활용하여 이윤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이 글이 발표되었던 1970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개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60년대 미국 자본주의의 호황기에 수많은 대기업의 전문경영인들이 낭비적이고 과시적인 지출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주주 중심 자본주의 하에서 프리드먼의 주장은 거두절미하고 이윤 지상주의로 받아들여졌고,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 분식 회계, 스톡 옵션 소급 적용(백데이팅)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커지는 자산 격차, 불평등, 기후 변화 등의 절박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투자자들부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이 시작되었고 결국 주주들의 힘으로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책임투자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ESG 경영은 가장 자본주의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인 주주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기업에 대응책을 주문하면 상장 대기업들이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공급망에 있는 다른 모든 기업들에게 대응책을 요구하는 방식인 것이죠. 예를 들어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표 기업들은 주주들의 친환경/탄소 중립 경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앞으로 10~20년 내에 조업 활동에서 배출되는 탄소와 같은 양의 탄소를 흡수/상쇄하여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 내부는 물론, 자신들의 협력업체에게 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 산업은 초대형 고객사인 이들의 요구에 발맞춰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상쇄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요. 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타당한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대규모로 탄소 중립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효과적인 ESG 경영을 위해 런던경영대(LBS)의 알렉스 에드먼스 교수는 2020년 저서 ‘ESG 파이코노믹스’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곱셈의 원칙으로, 기업이 이해관계자를 위해 만 원을 지출했을 때 해당 이해관계자가 만 원 이상의 혜택을 얻는지를 고려하는 원칙입니다. 이해관계자가 얻는 혜택이 기업이 지불하는 사적 비용보다 클 때에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비교우위의 원칙으로,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다른 기업보다 더 많은 가치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지 생각해 보고 가장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동원한 단순한 봉사활동은 곱셈의 원칙도, 비교우위의 원칙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반대로 회사만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만들거나, 장애인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면 위의 두 가지 원칙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중요성의 원칙으로, 해당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업적 중요성과 본질적 중요성 측면에서 따져 보고 중요한 이해관계자부터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주주, 직원, 고객, 자연환경,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할 때 그들이 가지는 이윤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이윤을 뛰어 넘는 본질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MBA, 최고경영자 과정, 그리고 기업체에서 이런 내용의 강의를 하면 으레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기업은 목표가 단순명쾌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지 않나요?”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간 동안의 모든 활동이 당기순이익이라는 하나의 수치로 평가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으며,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재무 성과와 함께 고려한다면 혼란만 가중되지 않겠느냐는 자연스러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글 앞부분의 인생의 중간고사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중간고사 과목들은 다시 말해 본인이 상정한 인생의 목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강한 삶, 보람을 느끼는 일, 여유로운 은퇴생활을 하기에 넉넉한 자산, 행복한 가족 관계, 잘 성장한 아이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하는 데에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적 성취를 위해 건강을 희생하는 경우도 흔하고,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 기러기 가족을 선택해 부부간의 관계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만족할 만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동시에 추구하되, 항상 목표들 사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쾌한 듯 보이지만 지나치게 단순한 재무 성과 극대화를 넘어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이며, 이런 복잡한 다중 목표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1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1.1.1~2021.7.29 기준)

<500만원>

57 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5 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65 학번	허광수	자문위원
67 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72 학번	김 윤	부회장
72 학번	허진수	부회장
74 학번	송명호	부회장
75 학번	허경수	부회장
77 학번	이만득	부회장
89 학번	정의선	부회장

<300만원>

84 학번	이용훈	부회장
-------	-----	-----

<100만원>

63 학번	여운대	고문
64 학번	강동식	부회장
66 학번	박성훈	자문위원
66 학번	최용순	자문위원
66 학번	황병조	자문위원
72 학번	양승은	부회장
73 학번	정기련	부회장
74 학번	강호갑	부회장
77 학번	이재홍	부회장
77 학번	이철우	부회장
78 학번	이영호	부회장
79 학번	이동열	부회장
80 학번	변대현	부회장
80 학번	정학현	부회장
82 학번	여용동	부회장
82 학번	최준영	부회장
89 학번	이동성	부회장
90 학번	송승민	부회장
92 학번	강정훈	부회장
	(익명)	
97 학번	심 건	부회장

<50만원>

55 학번	유상욱	자문위원
55 학번	이석호	자문위원
59 학번	석강봉	자문위원
60 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2 학번	김병건	자문위원
62 학번	최부웅	상임이사
66 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75 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8 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 학번	이상현	상임이사
79 학번	임영진	상임이사
79 학번	정몽진	상임이사
81 학번	김영민	상임이사
81 학번	홍흥석	상임이사
84 학번	배형근	상임이사
85 학번	김정호	상임이사
86 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93 학번	강준환	상임이사

<30만원>

67 학번	신동연	상임이사
70 학번	정균화	상임이사
74 학번	김동선	상임이사
79 학번	최수규	상임이사

<20만원>

63 학번	이연승	자문위원
63 학번	전현찬	상임이사
69 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71 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72 학번	최철기	상임이사
92 학번	윤선규	상임이사

<10만원>

자문위원

58 학번	유취성
-------	-----

이 사

53 학번	이호웅	
54 학번	김진배	
55 학번	김기인	
58 학번	함명돈	
59 학번	권상진	
60 학번	이웅휘	
61 학번	박순자	성명일
62 학번	송준일	
63 학번	이승철	이영무
64 학번	김용운	정제성
65 학번	최병일	
66 학번	신현욱	
69 학번	맹인재	
69 학번	신현웅	이정주
71 학번	권관순	최윤도
72 학번	문덕인	
73 학번	김순배	정봉채 현기춘
74 학번	김승길	박창근 윤명상
75 학번	강태성	김우진 김창경

76 학번	김덕만	박호인	서윤덕	장진원
77 학번	이완재	이용모		
78 학번	류한호	박주병	조경영	홍 승
79 학번	김상해	김용상	김원환	서동린
	안성경			
80 학번	배기범	정백조		
81 학번	김재범	유한수	이상혁	이훈복
82 학번	장태수	정교순		
84 학번	김준호	최병권		
85 학번	임경훈	임 욱	정병욱	
86 학번	양근섭	오인환	정종갑	
88 학번	박동진			
93 학번	염규상			

일반교우 <3만원>

48 학번	황헌수			
51 학번	전윤자			
52 학번	김영섭			
53 학번	엄기정	정 환		
54 학번	김동진	이종은	조해연	태호팔
55 학번	권중탁	김영식	김정래	김정식
	남치현	박상호	윤희표	이득주
	이승재	이형구	정삼택 (8만원)	
56 학번	권용진	김지영	신명철	윤길림
	이기홍	이연상	전상훈	최종해
57 학번	구인본	김문석	김영철	김재곤
	서우식	홍성규		
58 학번	남태현	박성업	선환규	오덕환
	이종철	천정호	홍종익	
59 학번	강창석	강해홍	김종길	김주환
	노규채	박형문	변홍주	송운한
	송창순	양재관	이기홍	이윤제
	이응두	이의방	이창용	한순영
60 학번	김광평	김상경	김상호	노수범
	박상화	박정자	송 정	신준호
	정현구	조수만	최덕형	한국언
	한기정			
61 학번	김도민	김병만	김순구	김홍곤
	박식의	박진자	박청자	박학신
	송일웅	엄무성	오영희	왕규철
	유기현	윤영범	윤태희	이근창
	이봉현	이원태	이재영	이재영
	이학주	전규수	채창현	최동권
62 학번	구자웅	김광대	김종진	김효명
	백효휘	석영부	송기현	유병하
	이소영	이인영	이호웅	한상욱
63 학번	김소부	김시균	김지창	남 훈
	백선기	윤익순	이천우	정완영

64 학번	고병선	김철주	김춘식	민선용	75 학번	김우태	김호섭	김 훈	박문재
	신준철	유명식	유재현	이경희		이재원			
	이항선	정제성	조종래	최종한	76 학번	이봉용	정민진		
	허석도	현봉길	홍현록	황석희	77 학번	김대철	임동하		
65 학번	강병호	박완근	박태인	신성용	78 학번	김일웅	박수영	오대용	정세중
	이경찬	조희원			79 학번	김성태	양원록	정운창	황보평
66 학번	김명진	박민규	박용혁	성순환	80 학번	김병조	김신희	김태현	유지열
	염수열	오창식	우강용	이연상		최유성			
	장철기	정동준			81 학번	이심훈			
67 학번	이계남	조용건	한기석	한상규	85 학번	신호섭			
68 학번	서세철				86 학번	류재열			
69 학번	김영호	정영목	정택모		87 학번	이종제			
70 학번	강명구	구본능	박병천		89 학번	이윤석			
71 학번	박용우	박장훈	허진영		91 학번	이상수			
72 학번	고재영	김영만	김종현	류병기	96 학번	이명준			
	양삼구	엄의식	장석산	전종환	00 학번	박 진			
	정우성	황순기			05 학번	강종범	김정권		
73 학번	손대정	이인철			07 학번	심윤보			
74 학번	김성화	박남식	박영식						

감/사/합/니/다.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의 경영대와 경영대 교우회로 발전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2021

회비 및 분담금
납부집계

일반연회비

달성

44.5%

목표 14,000,000 원

실적 6,230,000 원

기별분담금

달성

60.7%

목표 21,000,000 원

실적 12,750,000 원

임원분담금

달성

47.8%

목표 192,000,000 원

실적 91,830,000 원

TOTAL

2021년 7월 29일 기준

목표 227,000,000원

실적 110,810,000원



달성

48.8%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